朝鮮日報
夕刊 四日(火)
本紙朝夕刊十二面

11.2.5 C.C.C.LIBRARY

地中海로카르노案 佛國外相이提案

英도承認하나伊參加가疑問

關係諸國에參加要請

【巴里三日發同盟】佛國外相플랑당氏는 過般英帝御大喪에 際하야 이든英外相과 會見하고 懇談을 遂하엿는데 右會談에 際하야 地中海로카르노協約案을 提唱하엿다는 旨를 佛國政府當局은 三日에 至하야 半官的으로 確認하게되엇다 플랑당外相은 伊에兩國紛爭이 即座에 解決할수 업는 現狀에잇서서는 먼저 地中海의 緊迫한 情勢를 打開하야 地中海上의 英佛伊三國政府間의 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고 一步進하야 西班牙、希臘、土耳其各國政府를 招請할것을 示唆하엿다고 보인다 이든外相은 果然 伊太利政府가 地中海로카르노案에 協力할는지 疑問이라는 豫測을 내리고 잇스나 플랑당外相의 提案에 關하야 異議가업시 爲先 佛國政府의 「이니시어티브」로서 못솔리니首相의 意向을 打診하도록 要請하엿다고 解釋되며 그래서 플랑당外相은 巴里에 歸還後 各國政府首腦와 會見하고 벌서부터 地中海로카르노協議案에 關한 豫備工作을 進行中이라고보인다

플랑당佛外相

佛의自案固執으로 英佛對立益激化

軍縮會議前途危殆

【倫敦三日發同盟】軍縮一般委員會는 建艦通報案을 可決하야 드되어 英國政府提案의 質的制限案討議에 들어갓는데 主力艦最大排水量에 關하야 英米兩國代表와 佛國代表와의 意見이 對立하야 倫敦海軍會議는 再次重大難局에 直面하게 되엇다 英國政府에서는 地中海作戰上의大局에 鑑하야 大艦巨砲主義로轉向하야 主力艦 軍艦噸數 三萬五千噸을 提言하엿는데 佛國代表部는 二萬七千噸案을 堅持하고 英國政府의 提案은 軍縮의 目的과 背馳되는것을 指摘하고 不讓한다 英國代表部에서는 巡洋艦에 關하야 自國年來의 方針을 貫徹하고 甲級巡洋艦의 建設을 中止하야 事實上 巡洋艦單艦噸數一萬五千噸 乃至 八千噸으로 限定할作戰이라고 解釋되는데 佛國代表部는 英國政府의 巧妙한에누리를 看破하고 主力艦單艦噸數에 關하야 自國主張이 通하지안는限 巡洋艦의 質的制限案은應할수업다는 立場을頑強히 表明하얏다 勿論佛國代表部가 即時 會議를 脫退하리라고 보는것은 過한早計이다 英國政府에서는 海軍會議 前途에 憂色이 濃厚하다

米國의提案인 艦齡延長案可決

軍縮技術分科委員會

【倫敦三日發同盟】四國海軍軍縮會議第一委員會 技術分科委員會는 三日午後三時半부터 開會하고 米國案인 戰鬪艦艦齡延長(二十年을 二十六年으로)을 全員異議업시 可決하고 또艦種分類其他의 質的軍縮細目을 討議하고 午後六時十五分 散會하엿다 同會合의 決定要項은 如左하다

一、戰鬪艦艦齡二十年을 二十六年으로 延長하야 軍艦의 自然的縮減을 期하려는 米國代表의 提案을 妥當한것으로認定하고分科委員은 이第一委員會에 依하야 採擇되기를 勸告하기로決定

一、華府、倫敦兩條約의 艦種分類方法及 定義는 今後의 軍縮諸條約에도 그대로 適用하기로決定

一、乙級巡洋艦과 驅逐艦과를併合하야 一艦種되게할지그與否에 關해서는 今後 아직 協議가 必要하다고 認定하고

(가) 모니타ー艦(旋回砲塔附裝甲海防艦)의定義

(나) 制限外艦艇의定義

(다) 給油船及 病院船等을 建艦通報中에 包含시킬與否 等의 諸細目을 協定키爲하야分

艦種定義其他 分科委員會決定

【倫敦三日發同盟】海軍專門分科委員會는 三日 午後三時半부터 클라렌스하우스에서 開會하고 英米佛伊四國委員 十六名出席裡에 質的制限問題의 前提인 艦種의定義 其他에 關하야 協議를終了하엿다 委員會의 協議事項은如左하다

▲艦種의定義

一、戰鬪艦 基準排水量一萬噸을超過하는軍艦又는 口徑八吋를 넘는 砲를 裝備한軍艦

一、航空母艦 特히또는 專혀 航空機를 搭載할目的으로서 또는 艦上에서 飛行機를 發着할수잇는 構造를가진 一切의海上艦艇

一、巡洋艦 基準排水量 一萬噸 乃至一萬噸以下로 備砲口徑八吋 乃至八吋以下의 軍艦

一、輕水上艦艇 基準排水量一萬噸以下로 備砲口徑六、一吋 乃至 六、一吋以下의 軍艦

▲艦齡、基準排水量

一、戰鬪艦完成日로부터 二十年을 經過할境遇에 代換할得할

一、軍艦의 基準排水量이란것은 工事가 完成되고 乘員이 充實하야 汽罐의 揭載 또는 航海裝備가 完成되엇스나 다만 燃料及 豫備罐水를 搭載치아니한 軍艦의 排水量을 말한다

以上 艦種에 關한 定義에 基한 十吋、十一吋砲를 裝備한 獨逸海軍의 特殊所謂「袖珍戰艦」은 戰鬪艦의 範疇에 들어가게되엇다 또航空母艦以外의 艦種으로航空機의 發着裝置를 加한것도 石艦種은 專혀 航空母艦으로 設計되지안는限 航空母艦取扱을 받지안키로意見이 一致되엇다

石油斷交에對備 代用品增産考究

알콜代用次當業者에釀造高申告命令

무首相旣定方針遂行

【羅馬三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聯盟諸國의 石油斷交案에 對抗하고 끗까지 旣定國策을 遂行할 見地에서 石油代用品의 生産增加를 圖하기로 決定하고 組合相으로 三日 專門委員會를 任命하야 具體的計畫立案 을 委囑하얏다 또政府는 萬一의 際에 石油代用으로 알콜을使用하게될 境遇를 考慮하야 三日官報로써 알콜飮料品釀造와 販賣業者에게 對하야 酒類年産額及現在의 釀造高를 申告하도록 命令하엿다 (寫眞은 무首相)

石油斷交에關한 專門家小委員會

可能性調査키로決定

【쥬네브三日發電通】聯盟의 對伊石油斷交가 果然 크게 그效果를 낼수잇슬는지 그與否를 審議키爲하야 十八國委員會에 依하야 任命된 石油斷交專門家小委員會는 三日午前十一時三十分부터 初會合을 開하고 英國、墨西哥、蘇聯、和蘭、베네쥬라、이락、이란、諾威、瑞典의 十一石油關係國의 專門家가 出席하야 墨西哥代表코베그氏를 議長에 推擧한다음 討議에 들어갓는데 對伊石油斷交가實施될 境遇에 伊太利가 石油를 輸入할수잇는 모든 通路를 精細히 調査하고 그限度가 能한지 그與否의 討議를 開하엿다 그리고 그手段으로 左의五點의 調査를 行하기로 決定하엿다

一、平時及 現在의 戰時條件下의 伊太利及伊太利植民地의石油輸入量調査

一、伊太利에 對한 石油供給地의調査、特히 最近伊에紛爭開始以來 獨逸、墺太利、匈牙利等의 諸國을通하야 伊太利에 石油가 輸入되고잇는事實

一、伊太利及 伊太利植民地의現在의 石油貯藏量及 貯藏手段의 調査

一、伊太利手中에잇는 石油탕가其他의 運搬手段調査

一、石油斷交의境遇에 伊太利가 使用할수잇는알콜性燃料其他石油代用品의 調査

米下院委員會 新農業法案可決

【華盛頓三日發電通】米國下院農業委員會는 新農業法案을 十七票對六票로써 可決하야 本會議에 回附하엿다

斷交案成否는 米政府決意如何에

【쥬네브四日發同盟】石油斷交委員會는 三日午後의 會議에서 石油斷交案의 具體的討議에 들어갓는데 結局 斷交案의 成否는 米國政府의 決意如何에 달렷다고 解釋된다 米國政府의 態向이 本國 乃至 植民地에 對한 石油輸出量을 平常限度에 限定할 境遇에는 石油斷交案의 實效는 期待될것으로 石油斷交委員會도 米國政府의 態度決定과함께 石油斷交를 斷行할것으로 보이는以上 石油斷交委員會는 現狀調査의 一段落後 休會에 들어가 斷交案에 關한 英米兩國政府의 折衝經過를 기다리기로되엇다

二小委員會設置

【쥬네브三日發電通】石油斷交專門小委員會는 一日 休憩後午後三時半 再開하고 伊太利에 對한 石油供給地及 伊太利에 輸入되는 石油運輸手段調査를 爲하야 다시 二個의 小委員會를 設置하고 散會하엿다

土耳其外相 佛巨頭歷訪

【巴里三日發同盟】土耳其外相아라스氏는 三日午前 佛國外務省에 플랑당外相을 訪問하고 또 午後四時 사로ー首相을 訪問하야 歐洲刻下의 情勢에 關하야 重要協議를 遂하엿다 아라스外相은 土耳其政府로서는 地中海로카르노協約案에 異議가 업다는 旨를 聲言하엿다 但 다ー다넬스海峽의 非武裝規定撤回를 要望中이라는 旨를 述하엿다고 解釋된다 其他 발칸協商에 關한 勃牙利政府加入問題에 關해서도 隔意업는 意見交換을 遂하얏는데 三日午前十時부터 또 藏相 본네氏와 會見하고 佛土兩國間 通商條約改訂에 關하야 協議한後 다시 르브랑大統領을 訪問할터이다

限産規定廢止 루氏議會에要求

農調法違憲判決로

【華盛頓三日發電通】루ー즈벨트大統領은 三日 議會에 書翰을 送하야 農調法失效에 伴하야 이와 法理上 直接關聯을 가진 棉花(所謂방크헤드法)及 煙草、馬鈴薯等에 關한 各限產規定을 即時 廢止하도록 立法手續을 取하기를 要求하엿다

社會事業團體에 御補助를御下賜

【東府電話同盟】宮中에서는 來十一日 紀元節에 際하야 例에 依하야 各種社會事業團體의 御奬勵의 御軫念에서 全國七百餘의 社會事業團體에 對하야 御補助로 金一封式을 御下賜하옵시겟다는 旨를 一日 內務、文部、司法、拓務、遞信各省主務官廳에 各其 御吩咐가 계시엇스므로 十一日 各地方長官을 經하야 各團體에 傳達交附할터인데 御下賜金總額은 二十餘萬圓이라고한다

話題解說

캐스팅·보ー트

캐스팅·보ー트(Casting Vote)라는것은 一語으로 要約하면 議長의 決裁權이란 말이니 即 會議에잇서서 可否의 投票가 同數가되는 境遇에는 議長이 可否 어느한便에 一票를 投함으로써 그것을 어느쪽으로든지 決定지우게 되는바 이때에 이議長이 投하는 一票를 가르되 캐스팅·보ー트라고 하는것이다。 그러므로 다시말하면 議長의 決裁權을 이름이다。 그러나 이는 한原則에 지나지안코 實際로는 各其所定에 따라 議長의 投票權을 認定하는데도 잇고 認定치 안는데도 잇스니 例컨대 英國에서는 下院은 議長의 이決裁權을 認定하나 上院은 이것을 認定치안코 可否가 同數인때에는 當然히 否決되고마는다。 또 佛國에서는 議長의 投票權도 認定치안코 獨逸에서는 投票權만은 認定

◇

以上은 캐스팅·보ー트란 말의 本來的意義 또는 法律的解釋이어니와 이말이 政治的으로는 第一黨과 第二黨의 勢力이 伯仲하는 境遇에는 第三黨이나 第四黨이 第一、第二兩黨間에 介在하야 議會의 勢力이 伯仲한 第一、第二兩黨의 決이나 또는 一般政治上 決定權을 事實上 掌握하고 잇슬때에 그第三 第四黨이 政治上의 캐스팅·보ー트를 掌握한다고 한다。 例컨대 田中內閣當時의 第一次普選에서 政友、民政兩黨의 勢力이 伯仲하엿슬때 明政會와 無産黨等이 極小數로써 캐스팅·보ー트를掌握하엿으니 今回의 總選擧에서도 兩黨의 勢力分野가 如何히 될는지모르거니와 지금의 實業同志會等은 亦是 政友、民政兩黨의 勢力이 小差로써 伯仲하게되고 그中에서 昭和會、國同、無産派等의 所謂 小會派가 캐스팅·보ー트를 掌握하게될것이아닌가 하는것이 一般의一致된 豫想이다。

冀察政權

最高顧問으로 土肥原少將就任

【東京電話同盟】冀察政務委員會는 委員長 宋哲元氏를 中心으로 治安維持、保産業開發、經濟建設、軍事整備等에 着着努力中인데 軍當局에서는 熱心한 懇望으로 奉天特務機關長土肥原少將을 冀察政務委員會最高顧問으로 招聘하겟다는데 對해서는 그要望을 容認하야 北中民衆의 幸福增進에 努力하기로되어 來三月의 定期異動에 同少將을 中將에 進級케하야 冀察政權의 最高顧問으로 그手腕을 휘날리도록 하기로 內定하얏다 同少將은 陸軍部內에서 드물게보는 中國通으로 北中政權의最高顧問으로는 참으로 適任者이라 그活躍은 期待되고잇다

明年度實行豫算 編成方針決定

公債漸減主義의貫徹을主眼

四日閣議에서承認乎

【東京電話電通】大藏省에서는三日 藏相官邸에서 首腦部會議를 開催하고 昭和十一年度 實行豫算編成方針에對하야 協議한結果 左와如히 決定하엿슴으로 四日閣議에 此를 附議하야 承認을 求하기로 되엿는데 그骨子는 特別議會에 提出할 追加豫算을 合하야 公債漸減主義의 貫徹을 圖하고 新規經費에 對하여는 될수잇는대로 此를 節約할것을 主旨로하엿다 그리고 議會解散으로 不成立된 豫算은 十一度豫算編成方針에 則하기로 되엿다 그리고 憲法第七十一條에 豫算이 不成立될 境遇에는前年度豫算을 施行하기로 되엿슴으로 右에關한 勅令을 二月中에 公布할터이다 實行豫算編成方針의 大要는 左와如한바 三月末에는 編成을終了하야 閣議에 提出할터이다

昭和十一年度實行豫算編成方針大要

一、歲入에關하여는 前年度歲入豫算의 各項에依할것을 原則으로함 但法律의 制定으로要할것은 此를 除外하고 特別議會에提出하고 追加豫算에 計上할

一、歲入豫算中 臨時利得稅와如히 當然 增收할것은 此를 計上하고 一般租稅 그他의 自然增收는 追加豫算에서 調整할 歲出에 對하여는 原則으로 前年度各款項의 金額에 依하기로하다

(A)十一年度不成立豫算에 잇서 減額되것은 此를 計上하지 안흘

(B)不成立豫算에 잇서 增額된것은 此를 旣定經費及 新規經費中 施行豫算範圍에서 增額되는것에 限하야 此를 計上하고 그他의 新規經費에 對하여는 此를 追加豫算에 計上할

(C)各省의 實行豫算書는 二月十五日까지에 大藏省主計局에 提出할

特別會計의 實行豫算編成方針도 一般會計에 準하기로함

맥·樞相 蘇蘭大學區에서當選

【倫敦三日發同盟】昨年의 總選擧에서 落選된 英國樞相맥도날드氏는 蘇格蘭事務次官스켈톤氏의 死去로 生한 空席補缺選擧에出馬하야 蘇格蘭大學區로부터 當當히 過半數以上의 投票를어더 當選하엿다

定例閣議

【東京電話同盟】四日의 定例閣議는 午前十時四十分부터 首相官邸에서 開會하고 岡田首相以下 小原法相을 除한 各大臣이 出席하야 먼저 川崎新文相의 就任人事가 잇슨後 高橋藏相으로부터 昭和十一年度歲入歲出實行豫算의 編成方針에 關하야 詳細報告하고 全閣僚가 異議업시 이것을 承認하엿다 다음 岡田首相이 災害善後措處에 關한 經費支辦 公債發行에 關한 件은 五日 午後一時三十分부터 樞密院委員會에서 審査하기로 되엇다는 旨를 報告하고 內田鐵相으로부터 東北方面遊說의 模樣及 同地方의 雪害狀況에 關하야 說明이 잇슨다음 十一時二十分 散會하얏다

立候補各派別 八百六十五名

四日午後一時現在

【東京電話電通】四日午後一時現在立候補屆出現況은如左

政友會	三四三名
民政黨	二八八
昭和會	四九
國民同盟	三七
社會大衆黨	二八
無産各派	五
中立	九三
國家主義團體	二二
合計	八六五

內譯 新 三七九 前 三八八 元 九八

滿獨通商條約 二月中旬協定成立

【新京三日發同盟】滿洲國外交部에서는 松島實業部農務司長의 報告에基하야 獨逸財團과의間에 通商協定의根本方針을決定하고 松島司長은 決定案을携帶코 四日 新京出發、東京에 赴하기로되엿다 南中國視察에赴하엿던 獨逸財團키ー프公使도 松島司長과 거진 前後하야 再次東京에赴할豫定으로 二月中旬부터 會議再開協定成立에 이를것으로 解釋된다

總督府局長會議

總督府定例局長會議는 四日午前十時四十分부터 第三會議室에서 開催하고 먼리宇垣總督이 今年은 朝鮮內各地가 모다 降雨量이 적어서 植付播種에 支障을 招來하야 農民이 困難을 當하는 일이 잇서서는 안될터임으로 지금부터 充分注意해주기바란다 라고 注意하고 井上遞信局長이 全北雲岩貯水池問題에 關하야 報告하고 警務局長代理上內保安課長 渡邊學務局長으로부터 平壤의 神社不參拜問題經過報告가 잇슨後 同十一時五十分의 散會하얏다

人事·集會

▲岸勇一氏(農林局土地改良課長) 新任人事次來社

▲竹鼻伊佐氏(道高等警察課高等係主任)新任人事次來社

▲佐佐木寶義氏(警察部檢閱係主任)同上

▲山根萬吉氏(道警察部補)同上

▲二見勝衛氏(京城本町警察署勤務) 新任人事次來社

▲下家仲志氏(京畿道警察部刑事課主任)同上

▲松下三代吉氏(利川警察署長)同上

▲禮鎬集氏(京江陸運株式會社取締役社長) 新任人事次來社

▲大小田友一氏(同常務取締役)同上

▲秋田春藏氏(同專務取締役)同上

八面鋒

◇主力艦噸數制限問題로 米佛이 舌戰을開始。

◇잘못하다가는 여기도 脫退의 一幕이 벌어지랴하는가。

◇에디오피아政府는 遷都를準備한다고。

◇首都는 밧구어도 祖國은 밧굴수업다는 最後決心인가。

◇新獨立國 比島聯邦이 三十九萬五千의 常備兵을目標로 徵兵制度를立案。

◇太平洋의 苦悶은 이구석에도 歷歷히 뵈인다할가。

◇總選擧를 보름남겨놋코 벌서부터 岡田內閣의 退却을 放送하기에熱中하는者가잇다。

◇그럿대야 結局은 政民聯立說박게는 못바라는모양이니 政黨內閣은 亦是꿈인모양。

第三國에依한 國境調査委員會

任命을蘇聯側이提議

【莫斯科三日發同盟】蘇聯政府當局은 三日 滿東軍司令部의 名義로 國境紛爭處理에 關한 自國의方針을 闡明하고 「公正한調査委員會」의 任命을 提言하엿는데 「公正한委員會」라고 稱하고 잇는것은 當事國을 包含치아니한 第三國의 調査團을 意味한다고 解釋된다 蘇聯政府에서는 一九三五年 十月十二日 日滿蘇三國政府의 代表로된 混合委員會를 提案하엿스나 第三國調査團 任命에 依한 仲裁는 今回가 最初이므로 國境事件을 자못重視하고잇는 證左라고 解釋된다

00203

中國駐屯軍增强에

滿洲事件豫備金充當에內定

【東京電話電通】中國駐屯軍의增强에는 十一年度 滿洲事件豫備金을 充當하야 今年四月乃至 五月의 同軍交替期에 實施하기로 內定하엿다

獨招請問題로 英佛間에危機

佛國은脫退도不辭

【倫敦三日發同盟】倫敦海軍會議는 獨逸政府의 招請案으로 드되어 英佛兩國政府가 正面衝突을 演하야 會議는 方今 重大破局에 當面하게되엇는데 英國政府에서는 可及的 早速한 機會에 獨逸政府를 招請하고저한다 意向인데 佛國代表部에서는 獨逸政府招請에關하야 反對를 表明하고 態度는 極히 强硬하야 最近英國政府의 執拗한 要請에 厭症을내어 英國政府가 讓步치안흐면佛國代表는 會議를 脫退할밧게업다고 憤然히 斷言햇다고 傳한다 萬若 佛國政府가 끗까지獨逸政府招請에 反對하면 會議는 드되어 決裂에 歸할밧게업다고 觀測된다

京城 金 京
金地金銀 賣買分析
合資會社 杉山商會
高價
京城明治町 合資會社杉山商會 電話本局(2)〇〇七四番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殖産銀行代理店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頭取 有賀光豊
資本金參千萬圓
全鮮各地에支店 出張所六十餘個所 及 東京、大阪에支店이잇슴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就業 〇勤人學生副業最良〇收多無休〇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치질 肛門病科 專門
東光醫院
大田本町二丁目 (電話四九番)
藥物治療無痛 柳東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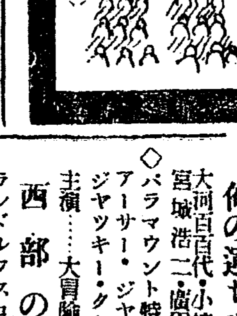
고구마 甘藷苗 販賣 育成
定價表進呈함
開城南山町 興林農園 振替京城一五〇三七 本店

創立明治參拾貳年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株式會社 朝鮮商業銀行
頭取 朴榮喆
專務取締役 堀正一
支店 出張所

문둥병
에석잘듯는癩病良藥과病菌의撲滅에最良療法이잇다 本病으로苦惱하는사람과家族近親者諸氏는火急照會를要함
大阪天王寺區 勝山三丁目停北 コトブキ園

朝鮮總督府 遞信局 海員養成所 入學案內 要貳錢郵券
選拔試驗地 京城、平壤、元山、木浦、鎭海本所

大學の先生も はれやか ¥0.30 ¥0.50 ¥1.00 (頭腦の爽快劑)



二月五日ヨリ七日迄特別封切 大人二十錢 小人十錢
晝夜二回 晝十二時半 夜六時半始
◇大都映畫現代劇部特作大活劇
ハヤブサヒデト監督主演
俺の運ちゃん時代
大河百百代·小笠原逸·宮城浩二·盛田義一 助演
◇パラマウント特作日本版
アーサー·ジャズソン監督
ジヤツキー·クーガン入社第一回
主演…大冒險大活劇
西部の掟
ランドルフスコット、デイーン·ジヤガー、イブリン·ブレント 助演
二挺拳銃!そればかりがの掟ではない凡ゆる不正に對しては素までも正義の拳を固めて立向ふそれが西部の掟だ…
◇大都映畫再巢鴨特作時代劇
石山稔監督作品
松山宗三郎·近衛十四郎 主演
三城輝子·東龍子 根良傳三郎·横山文彦 助演
鍔鳴り兄弟鑑
一宿一飯の恩義に親分の身代りとして偶島送り刑を終へて歸つて見れば戀人は兄と道行泣くな旅鳥
安くて面白い
若草映畫劇場
電本五二三五四番

朝報案內
無資金 求職指導處科都市勿論하고 普通學校卒業後나 또는 能動的 男年으로 妨妓渡日하는분은 至急照會하시오
安東縣五番通 文錢堂

女子 會社員採用希望者 要自筆履歷書 持參來談
內外通運合資會社
京城驛前 電本(2)六〇〇五

恩給 長期優待販賣 他에比較할수없는 利用이便한 特色 乞照會 回答
京城府授恩洞一六〇 鄭商會

갑장
製造家를 求함
◎年中無休……收入確實◎
本業은 小資本으로서 京鄕을 莫論하고 婦女子라도 容易하게 製造、製法은 三日의 講習으로 充分、製品은 一手로 引受、材料는 供給하며 遠地에 잇는分은 通信으로서라도 不便업시 取引할수잇슴、目下 有利한 條件으로서 製造者 募集中。
詳細는 通知次第說明書無料送呈
京城府黃金町五町目
朝日軍手京城支店
本店·大阪·支店·東京
電話本局(2)七五三番

實로! 하로밤새에 漢陽에 白花爛漫

겨울을弔喪하는季節의素服인가?

◇눈—아마도 이겨울의 처음의 선물인듯한눈이 사일 저녁때부터 사일아츰까지 약 두치가량이나 싸혓다

올겨울은 추위도 그야말로 근래에드문 추위엿지마는 눈이 그다지오지안하야 겨울다운겨울맛지를 안하엿다

◇오날립춘을 하루압두고 추위의 최후의선물로 약속이 미련의 눈만남기고 떠러나는 눈길에 오른듯하다

◇눈송이로 깨끗하며 참으로 눈답게 ... 그깨끗한눈이 하루밤사이에 모든 물건을 은색(銀色)한빛으로 물드리어 묻지그대로 추호만한틈도 평등하게 보혀준다

◇끊게끊게 쌓힌눈을 치우는 제설부(除雪夫)들은 고되어오는 손을 후후불며 전차궤도를따라 자리비질과 치우기에 열중하고잇다 학교뜰에는 아해들이 천진한눈으로 눈사람만들기

◇이번눈은 전조선에 골고루내렷는데 그중에도 경성과 인천지방이 만히온터로 이눈뒤에는 차차일기가 따뜻하여지겟다고 경성측후소원은 말을한다 사려지는눈을따라 이겨울도 사려지고 새로 봄바람이 불려오겟다

—☆—

雪皚皚壓了長安

月白雪白天地白

雲岩貯水池紛糾事件 今日解禁

이도旱魃의苦悶?

農民과水電會社貯水두고對峙 會社火電을設置코解決

오래동안 분규를거듭하고잇든리리(利里)에잇는 동진수리조합(東津水利組合)과 남조선수력전기회사(南朝鮮水力電氣會社)사이의저수지(貯水池)로인한 분규는 그동안 신문게재금지속에 계속되여 잇든바 오늘로 완전히 해결을고하고 함께 해금이되엿다 즉동진수리조합(東津水利組合) 운암저수지(雲岩貯水池)의 저수는 그조합농민이 관개에쓰고 내려오든것으로 남조선수력전기회사(南朝鮮水力電氣會社)에서 저수의수십설을 내리지안는 범위안에서 발전에 물을쓰게해는것인데 호남지방은 지난여름부터 가물이심해서 저수가례년보담 주려드러 농민들이 수미를펴지못하고 내려오든중 음에들어서면서 더구나 전기저수지의물이 설혼

오늘이立春

추위도이제한고개뿐

겨울아잘가거라

▽…립춘(立春)! 오늘이 대망의 립춘이다! 몸서리치게치운 삼동(三冬)도 이날부터 종되가을 시작하고 『동풍해빙』(東風解氷) 『칩충시진』(蟄虫始振)의 회창한봄이 『겨울아 너비켜라!』하고 대서계되엿다 한겨울동안 잠드럿든 나무가지도 버러지들도 비로소동면(冬眠)에서 깨어나게되엿다 하늘에도봄 땅에도봄 따에도봄

▽…년중행사로이 집집마다 대문(大門)짝에 『립춘대길』(立春大吉)『건양다경』(建陽多慶) 이라거나 혹은 『소지황금출』(掃地黃金出)『개문만복래』(開門萬福來) 등등의 립춘쪽을 부처가지고 새봄의 복을비는것이다

街頭의彫刻師

有吉公使襲擊未遂事件 嚴舜奉等公判開廷

被告等事實一部를否認

상해에서 유길공사(有吉公使)를 쏘아죽일려하엿고 상해조선인거류민회부회장을 쏘아죽엿다는 무정부주의운동자 남화한인청년련맹원(南華韓人靑年聯盟員)경북영양(英陽)출생 엄순봉(嚴舜奉)(二八)과 원적주소부정 리규호(李圭虎)(二[illegible])양명에관한 치안유지법위반(治維法違反)살인(殺人)강도미수(强盜未遂)등 피고 사건은 사일오후한시사십분 경성지방법원제사호법정에서 산하(山下)재판장, 향천(香川)검사의 당임으로 제일회공판이열렷다 먼저엄순봉부터 심리를 하게되엿는데 그는 제일년저 예심결정서에의한 대체적심문을 한데대하야 남화한인청년련맹에는 수양긔관(修養機關)이줄로 알고 가입하엿고 유길공사사살계획사건에는 참가한일도업거니와 그때(소화팔년삼월)남창(南昌)에서 거주하엿다하고 상해 조모(趙某)의 집에돈을빼아스려 드러갓다는 사실에 대하야는 처음에 계획은하엿스나 나중에 참가하지는 안햇다하고 작년가을에 상해거류민회부회장 리용로(李容魯)를 쏘아죽인것은 처음부터 그를 죽일의사를 가젓든것이 아니고 리용로가 비행이 만코 평소에권총을들고 피고의 뒤를 미행해다니든일이 잇섯스므로 그를차저가서 론난끄테 죽이게되엿것이엿다 하고예심결정의 범죄사실을 일부분 정정부인하엿다 다음으로 남화한인청년련맹의 결사목적과 유길공사가 상해륙삼정(六三亭)에서 도라가든도중에 권총으로 저격하자실에 대하야 심문하엿는데 그는남화한인청년련맹가입사실은 인하엿스나 유길공사 저격사건에 참가한일은업다고 전연부인하엿다(오후두시반귀)

拳鬪選手金基煥 懲役八個月求刑

절도죄(竊盜罪)로기소되여든권투선수 김기환(金基煥)은 사일경성지방법원에서 공판을받고 징역팔개월을 구형되엿다 그의어머니와 누이동생들은 법정에서 방성통곡하엿다

◇氷魔의港口仁川에 糧米와柴炭恐慌

【仁川】 살인적혹한의피해는 날로심하야 생활상타격은 갈수록 공공되는편이나 가장심한곳은 중산계급이하의생활현상이다 아에곡향 인천의제반물조사하건대 염송(炎松)일속에 이십오전올내어도 물건이업서서 사지못할지경인을로 임시용변으로 불편하나마 석탄(石炭)을 대용코자하나 그역가상점에 상비품이부족하야 큰두통을 이르키고잇슬뿐아니라 미가(米價)도 역시 사장밥표는 살릉미에 이십구원내외정도이나 그실시정은 현물부족으로 삼십원에도 팔지안는형편이다 평년전례에비한다면 현물시세가 기미시세보다 약오십전가량싸야할것인데 도리혀현물이 일원가량빗싼것은 오즉금번류빙(流氷)으로인한관계임으로 생활상위협을늣기고잇다한다

漢江採氷이미四千噸

『氷恐慌』念慮無用

今年여름은氷水黨은萬萬歲!

지난달 십이일부터 채빙(採氷)을 시작한 한강(漢江)의어름은 총면적일만삼천평에서 벌서 사천이백돈을 떼여냇는데압에 비추어 올에는 인조빙을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엇스므로그처럼 천연빙의채취분량을 벗쳐주리게되것이라 한다。 따라서 오는 여름의 어름갑은인조빙이나 천연빙이나 할것업시 례년보담약 일할가량헐해질것이라고 보고잇는데 이에따라 어름기근문제가튼것은 올부터 자연 해소하게되엿다한다。

기침에는 同和 止咳露 京城府和泉町五 株式會社 同和藥房

程度를넘친苛酷으로 "渡航證明"에非難聲

◇當局、勞働者以外에는緩和策을講究中

一般旅行者에多少便宜

현해탄(玄海灘)을 건너 동경 대판(大阪)등지로 건너가는 조선인에게는 누구든지 도항증명서라는것을 경찰당국이 교부하야 도항케한다 그런데 최초도항증명이 필요하게되엿것은 조선인로동자의 일본내지 도항을 제한하게잇섯스나 그후이것을 확대하야 비난이 만흠으로 경무국에서는 당분간 로동자 도항취체는 완화치안호나일반인의 도항에대하야는 수속또는 취체방법을 간단히하며또는 완화하고저 방금 방법을 강구중이라한다 현재와가티 도항증명서 엇기에 시일이걸리고 수속이번잡하야 긴급한 용무(用務)를보고저 도항하려는 사람도 사실에 잇서서는 증명서 한장때문에 큰일를 저즐려 버리며 또 일본내지에잇는 조선인이 고향에서 부모가 작고하여 귀향하려하여도 소위 일시귀선증명서(一時歸鮮證明書)를 잘하여주지안키때문에 드디어부모의 장례에도 참가되못하는일이 비일비재라한다

그럼으로 이도항취체의 전폐는 어떠튼 상당히완화할필요가 잇는것은 일반이 이에대하야비난하는소리가 놉흔 것을보아도 알것이다

白夜街頭의"넌센쓰"

잘못본華聞申請、虛僞强盜等等……

아홉자이하로 붓처내렷다 그회사에서는 그군린에 전력괴전등을 공급하는관계로 이것을 중지할수업다고하야 그대로 물을 쓰게되엿든까닭에 지주대회사이에 분규가이러나게되엿든것이다 그리하여 당국에서는 회사에 서화력발전기계를 설치하기로하고 그저수를일시쓰도록 조정했든바 지난사흔날에 이러이것이 완성되엿스므로 송전을개시한동시에 그분규는해소를 보게되엿것이라한다

……其一……

술취한김에 남의집 집웅우에올라가서 히롱을 하다가 주인에게몰려서 내려뛰다 머리를 꺼구로박고 상처를 바든채 룽치장으로들어간 사람이잇다 사일오후일곱시경에 시내청운동(淸雲洞)오십칠번지 정상(井上)세탁소외교원 방응병(方應炳)(二[illegible])이라는 친구는 술이잔뜩취하여가지고 시내팔판동(八判洞)삼번지김긔용(金起用)의집 집웅우에 올라가서 주정을 하다가 주인에게호령을 당하고 내려오다 머리까지 닥치고 급기야 소관종로서 룽치장으로 들어갓다고한다

……其二……

◇절은 부부가 의조케 이사(移徙)짐을 끌며 밀며 가는것을희롱하다가 기운센 그남편에게한주먹에녀아웃을 당하고 생명이위독한 충각이잇다 사일오후 네시경에 시외신당리(新堂里)이백오십일번지 룡곡고등녀학교(龍谷女學校)압거리에서 신당리 이백사십삼번지 구두직공최태성(崔泰星)(二[illegible])이가 그의안해와 이사짐을 구루마에 실고 의좃케 끄으락 미르락 가는것을 시외하왕십리(下往十里)일백사십이번지의상호 목수일문리(李鍾煥)(二[illegible])이라는 충각이 비우조케 조롱을걸다가 그만성낸 전긔최태성의 한주먹에 번수룰고 꺼꾸로 길에 내려박혀서 머리를 깨트리고 즉시 대학병원(城大病院)에입원치료중인데 생명이위독하다고한다

……其三……

◇지난일일오후여섯시경 괴도 룡인군이동면 시미리(龍仁郡二東面時美里)삼백 팔십구번지 최대용(崔大用)(二[illegible])은 그곳남면(南面)압 고개에서 오산(烏山)쪽을 향해가든중 어떤창한은이 나타나서 그가 가지고가든 원각수치를 강탈하여갓다고 소관룡인경찰서에 고발하여와다 이서에서는 곳비상선을 느리고현장을 조사하엿스나 피해자의말에이상한 점이잇서 피해자를추궁한결과 그는술을 만히먹고전긔물건을 어데다 일허버린후 이와가티 술김에 허위고발한것이판명되엿다한다

THE VISITORS' ENERGY ALMOST REVERSES RESULT

延專蹴球上海遠征戰評

Second Half Becomes a Ding-dong Struggle / Korea's Marksmanship Weak in Front of Goal

延專對聯合軍

우리朝鮮蹴球界의覇者 延禧專門은 東亞의先進都市 上海에遠征하야 [illegible] 三戰一勝二敗의戰績을 남기엇다 한바어니와 延專軍이遠征第一次로 上海香港西洋人聯合軍과對戰할때와 上海英字新聞 노ー르드·최이나[illegible]의戰評을 이에譯載하는바이다

◇朝鮮延專對上海、香港聯合軍戰은 一月廿七日午後三時부터 申園球場에서열린바 熱狂的興奮속에 四對二의스코어로 遠來의朝鮮延專軍이慘敗하엿다。 이날의觀衆은 實로五、六千名에達하엿는데 그들은 이對戰의入神한妙技에 歡呼로聲援을 아끼지안햇다 前半戰에 延專팀은 體力으로나 무엇으로보나 一日의長이되는 西洋人聯合팀에게 꼴두點을 빼앗기우고도 後半戰에 드러가倍前하는 氣力을내인것은 西洋人軍도 讚嘆할만하엿다 事實로 延專軍의끈기잇는攻勢에는 일즉이지나보지못한 奇觀을 거듭한形勢이엇다

◇延專은 듯든바와 마찬가지로 敏捷快足의選手들인것을 遺憾없이 發揮하엿다 그들의技術과 아울러 發揮되는 [illegible] 커다란힘이되기에 넉넉하엿다。 特別히 말해둘것은 金成玗君을 中心으로한 「포ー워드」의 活躍인데 「골」에서 「보내주는」「롱패스」를 「포워ー드」가 바더가지고 서로 巧妙迅速한 連絡으로 敵陣의「골」前까지 일으는데는 참으로驚嘆할만하다 그러나 너무짧은의 統制가업슴으로해서 好機를놋는때가 여러번잇섯다 延專軍은 技에 [illegible] 다 이對戰만을 例로들어도 西洋人들의「킥퍼」가 손에땀을잡엇슬때 「팔라인」을넘어서서 손으로 「킥퍼」를밀친다든가하는일이 여러번잇섯다 이러한조치못한點을 西洋人들은 보지못한적도 여러번잇섯고 또新聞이 [illegible] 이는압흐로 [illegible] 할바이다

◇特記할것은 延專팀의 「골퀵」 [illegible] 가장빗나는 存在로 防禦의 [illegible] 것이다 「하ー프·빽」에는 [illegible] 한가지 [illegible] 妙技를 發揮하엿다 [illegible] 며 여때면 容易히 어뜩마한을 노처버린일이잇섯다 (커ー드드든 延專對西洋人聯合軍戰評을 譯載한 「노ー르드·최이나」紙스포ー츠欄의 一節)

(聯合軍) 조이일 도라라인 웨뻘드 이웨 메르스 힐 빠스파리 벨코 포 호랑뻬 K G R F L R H C L H W R R F C R W I L L W

(延專軍) [illegible]

全朝鮮男女卓球大會

第十五回春期全朝鮮一般男女及老童卓球大會는 朝鮮卓球協會後援下에 來廿二、三兩日間 來靑閣

同德校內氷上大會

同德女子高普의 第二回校內氷上競技會는 五日午前九時半부터 [illegible]링크에서 열린다한다

日本氷上하키敗退

【가르미쉬三日發聯通】 日本올림픽代表아이스·하키팀은 三日當地에서 全獨逸選拔軍과 對戰한바 結局五對一로 敗退하엿다

全獨5(3-0, 2-1, 0-0)1日本

英陸上候補一六二名

【倫敦廿九日發同盟】 英國陸上競技聯盟에서는 英國AAA及 蘇格蘭AAA로부터 選拔한 올림픽陸上候補 百六十二名을 決定發表한바 代表選手決定은 七月十、十一兩日 「화이트·씨티」에서 擧行할 全英陸上選手權大會에依하야 選拔될터인데 이大會에는 一九二八年 『암스텔담·올림픽』의 第六位以上의 記錄保持者가 안니면 出場치못한다고한다

本社空輸飛行과 江華島民의祝電

"深甚 謝禮함" 慶春館

"厚誼를 感謝" 徐奉俊

"訪問飛行을 感謝함" 江華專賣局 阪野所長

"訪問을感謝함" 江華 百貨店

天氣豫報

槪況 七五四미리의低氣壓은 日本海南部를 東進中이며 七七八미리의高氣壓은 北滿洲로부터 朝鮮으로 進行中이다 南滿과朝鮮은 개이고 南鮮과 九州는 흐리며 西風이 强하고 日本內地도 一般으로 흐린다 昨日南滿과 西北朝鮮에는 降雪이잇섯는데 추위는만히풀렷다

豫報 京城地方今夜는西北風에 개이며추위지고明日도갓다

昨日最高 零度九 / 昨日最低 零下五度一 / 今朝最低 同 一二度二 / 今日正午 同 七度九

京城女子商業學校生徒募集
◎本科第一學年 百名 出願期限 自二月十日至三月九日 ◎選拔試驗 三月十一日、十二日 二日間
◎高等科(修業年限一年入學資格 女高普又는高女校卒業者)五十名 出願期限 自三月十日至四月十日 ◎選拔試驗 四月十一日、十二日 二日間(詳細來照) 京城府堅志洞八〇 (電光二一五八·二三九六)

果樹苗木分讓 京城府外뚝섬 元園藝模範場跡 久次米園藝場

●히스테리ー에 はれやか●

時計 型錄進呈 歐米各國時計無稅港大連經由入荷比朝鮮日本內地安價提供可能 滿洲國安東縣中與街四〇 滿蒙特產物商會

ネオチリン 림질 可恐할當常慢毒은流行하는淋疾。 消渴의療法으로서 玆에武藤、宇佐美兩醫學博士推奬의最新藥ネオチリン의服用을推奬한다。 本劑는當所研究部가加藤藥學博士와共히幾多의實驗을거듭한苦心研究의結果完成된것으로서殺菌力이 가장强하고急性慢性은勿論、尿痛症을解消한다。 (療法書進呈) 京城本町四ノ二六 株式會社 大村商房 兵庫縣細川、麗孫商會 株式會社 山本製藥所 全鮮藥店百貨店에잇슴

偉大한二大工業依賴합 돈버리 조흔家庭工業 生活의向上과 國富의增進을 爲하야 ... 第一 ... 第二 ... 大阪市西八二 株式會社

純佛蘭西式 ルノー料理 グリル保來 鍾路 保來빌딩內 光化門 639番

中央館 永樂町 電本三三 中央館
三十一日公開 ... 荒木又右エ門 全十四卷 ... ターザンの新冒險 全十卷 ...

東洋劇場 竹添町一丁目 電光二三五番
(二月一日早日)晝夜二回 ... 新唱劇 孝女沈淸 三幕七場 ... 장가보내주 一幕 ... 妓生의愛人 一幕 ... 秋風感別曲 二幕 ... 兒孩엄자가누구냐 一幕 ... 校長先生님 二幕

團成社 電光九八〇 靑春音頭 多彩한女性 結婚十分前 ... 餓鬼大將 ... 新版 薔薇紅蓮傳 ...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三六 ... 南洋의美와神秘에사는樂園바리 ...

在留朝鮮人同胞慰安 오케ー巡廻大演奏會
出演者—林芳蔚·金海松·林芳蔚·金雪月·吳潤泰 ... 外樂部員 廿餘名
◇…朝鮮藝術家總網羅…◇
◎東京 十二、十六、七、八日
◎大阪 二十六、七、八日
◎神戶 二十九日
◎京都 二十二日
◎名古屋 二十二日
其他 未定
主催及後援 朝鮮日報支局
오케ー레코ー드

엇더케하야서스타ー는어엽분가?

華麗한美顔優雅한손길
언제나青春의若肌!

霧立のぼる孃
(新興·武器업는사람들의스타ー)

桑野通子孃
(松竹·感情山脈의스타ー)

憧憬의美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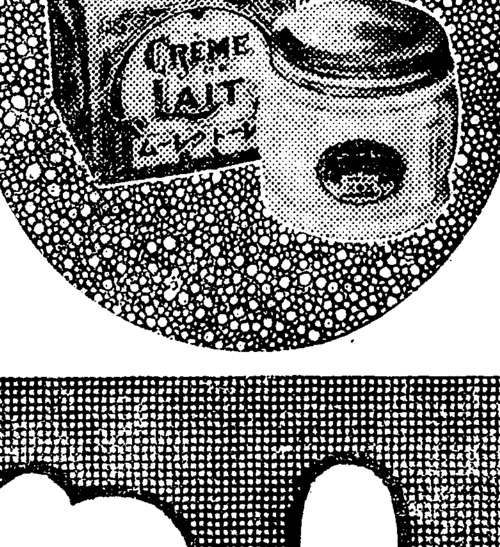
스타ー는어엽부다 언제나青春의若肌?어엽분물고기와가튼近代的美가姿態全體에넘치고잇다 스타ー는現世의天使이다。 여러분께서아시는바와가티스타ー는撮影中의濃化粧、바람비내려치는로케ー손等에普通婦人들以上으로살결이거츨어질것이언만누구보담 어엽분살결의主人公인것은、朝夕으로 **レートクレーム**를守護神삼아 항상 그愛用을겨을니 하지안키 때문이다。

レートクレーム는그特殊한藥効的成分이素肌에 浸透되야 皮膚의주름살주근깨지미等을解消식히며、血行을솟케하며、놀낼만큼青春의若肌를 創造하여내는作用을갓고잇다 白粉下로도 比類업는 美肌料이다。

大懸賞 目下豪華商品滿載한懸賞募集中 (詳細한것은近處販賣店에서問議)

千葉早智子孃
(P·C·L·求婚三銃士의스타ー)

000210



花柳少菊孃
(日活新進스타ー)

いきいきと青春の若肌

レートクレーム

레ー도구레ー무

東京 平尾贊平商店

비싼 이밥쌀대신 먹을만한 쌀업슬까
안남미 대만미도 밥을짓기탓
잡곡밥구수하게 잘짓는법

근래로쌀갑이 다락가티 올라가서 여간해서는 이밥을 맛보기가 어렵습니다。자금보담도 아프로는 더욱 올라갈뜻하다니 장차가 더큰문제입니다。업는 살림에 하는수가잇습니까? 그저 안남미밥 대만미밥이나 그러치 안하면 조밥 버리밥이 오리알에 제똥무든셈으로 제격에어울립니다。그런밥이 물론 이밥과가티 그러케 보드럽고 고소할수야 잇습니까? 꺽꺽하고 맛은 나쁘지만은 그나마 세끼니를 걸르지 안는것만도 다행히 녀길 댁이수두룩합니다。그러나 그런밥을 좀더맛나게 지어먹을 도리는 과연 업겟습니까? 사람의 욕심이란 아모래도 그러치안한터로 그런것도 한번 연구해봄즉하지 안습니까? 자、지금 이아래 그방법을 몃가지 소개합니다。조밥 보리밥으로도 이밥내노코 먹을만큼 맛나게 되는 신긔신통한 방법입니다。

안남미、대만미밥

안남미나 대만미는 조선미보담 단백질(蛋白質)이 조금 적을뿐이요 다른양분에는 별다른 손색이 업습니다。단지 끈긔가 적고 섬유(纖維)가 만키때문으로 맛이 아모래도 낫브게 됩니다。그러고 석유스내가 나느니 타마유스내가 나느니하지요만은 그것은 배로실어오는동안 뱃속에서 밴것이요 쌀에서 나는냄새가아닙니다。몬저 해스밧에 여러날 쪼이고 말리어 그냄새부터를 때바리지 안하면 안됩니다。그러고는 여섯시간이상 열여섯시간까지 그냥 물에 담거두십시요。그것은 냄새도 더빠지고 쌀알도 흥신 퍼지라는말입니다。그다음 밥물을 붓고나서 그우에다가 쌀한되에 전분(澱粉)을 두홉비례로 슬쩍 둘러보십시요 그것은끈긔를 좀 돕게 하려는것입니다。밥물은 쌀의 삼배라 즉 쌀두되에 물여섯되폭이요 밥을짓는 시간은 조선쌀의 이배라 즉 조선쌀로 삼십분 걸릴것을 한시간으로 늘리는 폭입니다。불은 첫번에 와짝 끌토록 세게했다가 밥물이 넘을만할때 좀약하게 주리고 또한참지난뒤부터 뭄이자슬때까지 무둥하게하야두고 또다시 뭄이자즌뒤 십분쯤 뜸을 드립니다。

×

보리밥

요사이는 보리도 여러가지로 가공(加工)해서 팔기때문으로 그러케 짓기가 까다롭지는 안하나 가공하는동안 조흔양분이 다빠저나가기때문으로 재미업습니다 차라리 귀찬코 섞가실찌라도 가공하지 안한 보리를 사다가 밥을 해자시는것이 낫습니다 보리밥에는 입쌀을 삼분지일이상 섞그면 물론 조흐되 쌀이 그이하나 아조 팡보리밥이 될때는 끈긔가 업서 큰 탈입니다。그럴경우는 고그마나 감자를 얇게 저미어 섞거가지고 밥을 짓는것이 제일입니다。

조밥、피밥

그역시 어느정도까지 쌀을 섞지 안하서는 끈긔가 업서 거북합니다。거긔서 고그마나 감자를 게 저미어 넛는것이 조흡니다

지장밥

지장은 대개 찰지장이니까 끈긔가 업슬것은 걱정이 아니나 그대신 너머 차저서 먹기가 거북합니다。거긔는 콩맛을 무릅하게 몬저 물리어가지고 섞거서해먹는것이 조흡니다。

콩밥、팟밥

콩과 팟을 몬저 물려야합니다。그것도 살머서 물리면 맛이 나뿌니 생으로 물려야 합니다。그러고 팟은 갈아서 물리지 안코그냥도 해먹으나 간팟보담통 팟이 낫습니다。또콩은 흰콩 검은콩이 잇는데 흰콩보담 검은콩이 낫습니다。

×

흔히 안남미나 대만미에다가 조선쌀을 섞습니다。양은 싸전에서는 미리부터 섞거서 싸게도 팝니다。그러나 그것은 아까운 조선쌀만 버리고 안남미 대만미밥을 면하게 되는것은아닙니다。그런쌀은 애초부터 사시지를 안는것이 조코또 더구나 댁에서도 그러치안하시지 안는것이 조흡니다 그런데 냄새를 찬찬이 빼는사이가 업시 끄려잡숫게되는경우에는 어떠케 하느냐고요? 팟을 조금 섞는것도 무방합니다。또 팟좀 섞거서도냄새가 그대로날때에는 어떠케 하느냐고요? 아조 처음부터 김치나 조썰어너코기름과 간장을 치고 비빔밥을 지어 버리어도무방합니다。

가두대회수상자

시내 긔독교 녀자청년회주최와 본사학예부후원인 져딸회가두대회는 예정대로 재작이월일일밤 일곱시 서대문정 동칭년회관에서 개최되엿습니다 정각전부터 모여드는 회원은 정원을초과하야 장내는 발드딜 틈이업스며 환호와 갈채로서 동 십이시에 폐회한바 금년의상자는 아래와갓습니다

일등 리종서
이등 김희경
삼등 정이숙
사등 문숙자

머리압흔증낫는 간단한맛사ー지
봄이되면 머리아푼것은 무슨까닭인지 아닙니까
五分만하면 시원해진다

나무입 피여나고 꼿봉에 새가 재갈거리는때가되면 명낭해저야 할텐데 오히려 머리가 호릿터분해지며 우울해지는폐단이 만습니다 이것은 건강치못한분만 그런것이아니고 아모리 건강한분이래도 머리가 피곤해지기쉽고 눈이잘떼이지를 안호면서 하품을하게됩니다 이것이 웬만큼하면 좀괜찬치만 정ー심하게되면 정신이어서지기도하고 어지러워서 너머지는일까지도 잇고 또 귀에서 소리가나고 불면증에 걸리는수도 잇습니다。이러케되는까닭은 다름아니라 봄긔운이 전신의 혈액을 표면에로촉식히는관게로 혈액순환이 누리게되며 따라서 로페물이 뇌와전신에 체루되는때문이외다 흔이들 봄이면 으레히 머리가 아프고 조으럽이오고 피곤한것이 거니하고 등한시하는모양인데요 이럴때에 마찰법을 이용하시면 무거운머리가 가벼워지며 머리의움직임이 명낭하게됩니다。

이마찰법이란것은 아주간단해서 자긔혼자서래도 넉넉히 할수잇는것입니다 더구나 시간이 겨우오분박게 걸리지안는 편리한것임으로 여기에 소개하오니 여러분은 한번시험해 보십시오 누어서도 되고 안저서도 될전차나 긔차에서도 될수잇는 지극히간단한방법입니다 어떤분의 댁에서는 매일아츰 시간을정해노코 라듸오 체조모양으로 전가족이 한례모혀안저서 한다는 이야기도 들엇는데 그러케한다면 물론조흘것이고 하로의활일을 유쾌하게 마칠수잇슬것이라고생각합니다 어떤선생은 학생들이 피곤해하는눈치가 뵈이면 이마찰법을 시작한다고요。

◇

제일……첫재 그림과가티 자긔의 두손(팔목쪽으로)을 조곰 힘잇게 대인다음에 처음에는 살작살작 만지다가 차즘차즘 힘을 너흐면서 약십오번가량 천천히 회전식힙니다(第一圖참조) 살인은 문지르는 방향을 보이는것인데 손바닥은 한번대여든곳에서 떼지말고 피부와함께 윤곽을 그리면서 긔분이조토록문지르는것입니다) 회전법(廻轉法)이 끗나면 그다음엔 둘재번순서로 옴깁니다。

제이……양쪽사람가치 둘재손가락에 가운데손가락을 언저가지고 양쪽 눈섭위를 미간(眉間)에서 눈끄리쪽으로 향하야 약열번쯤 가벼웁게 마찰하고 다음에 아래눈 딱지를 또열번쯤 마찬가지로 문질릅니다 이것은 독서나 재봉이나 편물한 뒤에 피곤을 낫게 하는데 가장필요한 마찰법입니다(第二圖참조)

셋재……양쪽가운데손가락을 양쪽귀미트로대고 둘재손까락과넷재손까락을 가운데손가락에 한데모아가지고는 좀힘을너흐면서 처음에 먼저 열번가량 회전식히고 그다음에 그부분을 세손가락끄트로 마찰하는데 범위를 계해가지고하십시요

넷재…그다음엔 그림(第三圖)과가티 양쪽둘재 셋재 넷재 다섯재—네손까락을 좌우편귀밋아래쪽에 대이고 아프리만치하게 눌느면서 천천히 열번가량회전하고 그후에다시 네손가락끄트로 우에서 아래를향하야 열번쯤 문지르면됩니다

다섯재…좌우쪽손바닥을 압니마에대고 양쪽손가락끄틀 대인채로 귀밋쪽에향해서 또열번가량 문지릅니다 이러케하면 머리전체가 혈액순환이 잘되어서 머리압흔것도 무겁든것도 다 너어지고 아주 명쾌해 집니다。(第四圖참조)

이상에 말슴한 다섯가지 방법은 오분박게 걸리지안코 또 어듸서든지 간단이 할수잇는것이므로 하로의 일을 끗내고 도라오시는 길에 전차에서라도 눈을 감고 조용히 이법을 시행해보시기바랍니다。

家庭醫學

손이검은데

問 이십세남자이온대 손이대단이 검습니다。그래서 과산화수소를 발늡니다。발으면 백색작용을하오며 부작용은 업슴니가。만약 부작용이 잇슬때에는 엇더한약이 필요하오며 다른백색작용은 업습니가 자세히 가르켜주십시오 (市外 一讀者)

答 손검은 정도가 엇더한지 모르겟습니다만은 구태여 희게할필요가 업지안습니가。도리혀 건강의 심볼인즉 아모념려할것업시 보시는일이나 힘쓰시기를 권합니다。과산화수소는 피부를 손상하고다는폐단이 잇스니 중시하시고 다른내복약도 잇스나 별로 효과를 기대할수업사오니 천연그대로 두시는것이 조흘뜻합니다。(大學病院 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晟鎭)

나무에서락상한데

問 저는금년십팔세의남자이온대 칠세때에 나무에서 떠러저 왼팔이뒤거젓섯는데 지금에와서는 바른팔이 상월좀은 하오나 왼팔이 조금뒤거젓사오대 이것을 고칠수잇습니까 자세히하교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市內 一讀者)

答 골절(骨折)인지 탈구(脫臼)인지 말슴만드러서는 알수업사오나 발서십년이나 경과된것이면 그중어느것이라도 구더젓슬것이오니 지금에 교정하기는 어려울것입니다 그러나 긔형(畸形)이심하다든지긔능장해(機能障碍)가잇다면은 어느정도까지 곳칠수 잇슬것이오니 전문의에게 진찰을바더서 렌트겐검사도하야 수술의 효과유무를 판단하시기바랍니다。(大學病院小川外科 醫學博士金晟鎭)

머리흠에 털나게하는법

問 저는 금년 십오세되는 청년이온대 어렷슬때에 머리가 헐어서 흉이 되엿는데 어떠한 약을 사용하여야 조흐며 수술하여서라도 꼭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하겟습니다 (市內 고민生)

答 얼마나 큰 흠이지 보기 전에는 알수업사오나 적으면 그것이면 흉만 적출하고 봉합수술(縫合手術)을 하면 고만일것이오 털나게하는 약은 원래가 큰 효과를 긔대하기 어려운데다가 모생조직(毛生組織)이 파괴되여버린 흉터에 발라서는 절대로 효력이업슬것입니다。(大學病院 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晟鎭)

액추와모생약

問 이십오세남자인데 전에는 몰낫드니 겻땀이옵시나며 액추가심하온데 한선수술을하면 전연 그러한증세가 업서질가요 이수술을바드면 절대로안정하여야하며 십리정도의거리이면 날마다 통원하야서는 안됩니가。수술비와 시일은 대개얼마나되겟습니가。요사이탈모약이 만히낫는데영은 확실히 모생이됩니까。그리고 모생약은 탈모가됩니까。머리에잇는 뜸자리도 약으로 모생할수잇습니까 (京城 朴生)

答 액추(腋臭)는 체질에따라서 심하는사람이잇스며 한선적출수술(汗腺摘出手術)로 완전히 치료할수잇습니다。치료긔간은 약삼주일이요 비용은 병원에따라서 달으니까 일반적으로 말할수업스며 입원치료가 안전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통원치료도 할수잇습니다。탈모약은 영구적효과를 엇지못하니 자라나는대로 자조사용하야 업시는수박게 업습니다。모생약의 효과도 절대로 신용할수업스며 더구나 뜸자리가 트데는 모생조직(毛生組織)이파괴되야잇서 여하한방법이라도 업니겟할수업습니다 (大學病院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晟鎭)

대문에써부치는덕담
아모리치워도 지금부터 봄
─세재병자만사형통하소서─

立春
大吉

이달 초닷새날이 립춘(立春)이랍니다。이때까지 봄불하얏지만서도 이제부터참으로 봄철에 들어서는 셈이올씨다。녯말에 이르기를 립춘이 되면 솔솔동풍에 어름은 풀리며 버러지들도 겨우궁을 깨고 물고기도 어름욱로 뛰어 오르기 시작한다나요。즉 봄철로 들어서는 자연의 경치를 그린것이지요。그런데 립춘에는 대문에다가 덕담을 써서 부치는것이 우리들의 녯풍속입니다。써부치는 그 글씨조차도 아조 립춘이라고 부릅니다。요사이는 총독부에서 립춘도 통계를 하기로 되얏습니다。그전가티 아모 글이나 함부로 써부치지를 못합니다。그런데엇재 그랫는지 립춘은 립춘을 써부치는이외 동지나 한식처럼 그러케 떠들지안앗습니다。실상립춘이란 이름만으로 상당한 명절이 되득 하거만은 거긔딸린 동록한풍식도 업고 또 거긔딸린 전설도 업서서 비교적 쓸쓸 합니다。그러나 요사이 미두판에서 떠드는 이백십일이나 이백이십일이니 모다 이립춘날로부터 게산한 날짜랍니다。그만큼 년사의풍흉을 점치는데 잇서서 중요한 하로가 되야 잇습니다。세재병자 만사형통(歲在丙子萬事亨通)을 어느어느댁에서 써부치시고 또어느어느댁에서 써부치시지 못 하얏습니까? 써부치신댁은 고만두고 못써부치신댁을 위하야 이자리에서 도거리로 일커러 둡니다。병자년에는 만사 형통하압소서! 립춘을 써부친듯이 만사형통 하압소서!

外海뉴ー스
여섯살에 신문잡지를읽어

남아프리카연방 『무링스·알바ー트』라는 동리에 『로란드·휘크』란신동(神童)이 출현하엿는데 그근방사람들은 그아희의장래를 대단히 촉망하는바이라합니다

신동이라고 떠드는 『로란드 휘크』군은 금년에 겨우 여섯살인대도불구하고 영어는물론『아푸리카』말도 잘함으로 어학으로 보와서는 중학생 이상의 두뇌를 가지고 잇답니다。로란드군은 생후 겨우일개년반쯤되엿슬때 문법을 해석하엿다는 것을 드르면 그기럭이 무섭게 뛰여남을 가히 상상할수 잇는바이며 그아기는 집안에서는 아직도 어머니 엽흘 떠나지 못하나 언제든지 신문、잡지、서책을 읽을뿐아니라 신문은 매일빼지안코 읽으며 조곰만 틈이잇스면 그손에 서책이 떠나지안흠으로 그어머니는 깁뿌기도하고 한편념려도 한답니다。

【童話】
兄弟의마음
金相德

어느시골에 정다운 형제가 살고잇섯습니다。아버지와 어머님이 도라가서서 재산을반씩갈러서 논아가지고 한동리안에서의좃케 살엇습니다。

어느해 가을이엿습니다。정다운두형제는 풍년은 못되여도 비교적형제가 다농사가잘된셈입니다。

형은 동리사람들의 힘을빌어가지고 논에벼를 베여서 논두덕에 너러두엇습니다。며칠동안 너러두어서 햇스볏헤말려 인제는 거더드리게되엿습니다。래일쯤 거더드리려고 외종일밧헤서 산볏이가리 볏단을 논한편구석에 싸허두고 날이 저물어서야 집으로도라왓습니다。

×

마음조흔 형은 저녁밥을 먹고 혼자생각햇습니다。『올해는 농사가 풍년은 못되여도 그래도 비교적 다른사람보다 잘된셈이다。우리 추수는 이만하면 넉넉하고도남을것이다 그리고 나는 안해와 아들도 잇거니와 동생은 저혼자서 추수도 만치못하야 얼마나 섭섭하고 쓸쓸 하겟느냐 내추수에서 동생을 좀더주는것이 올흔일이겟다』고 형은생각햇습니다。

그래서 그는곳 부인을불러습니다。

부인에게 지금생각한것을 죄다 이야기햇드니 그부인역시 마음이고흔사람이라 대단히 조흔일이라고하며 찬성햇습니다。

이러케 서로의론을하고 형은 밤에 넌즛이나와서 자긔논에 벼를 여러짐 저다가 동생의 논에잇는 벼스뗌에다가 싸허두고는 아모말이업시 집으로 도라왓습니다。

×

동생도 그날 논에서 일하고 늣게야집으로 도라왓습니다。그래 매우피곤해서 단잠을 자다가 밤이깁허서 잠이깨엿습니다。

잠을다시 이루려고 애를쓰나 이런생각저런생각이나서 좀처럼 잠이 들지안헛습니다。『나는 혼자몸이니까 넘려업지만은 형님은 식구가만허서 올가티 풍년못된해는 지내시기가 매우 어려우실것이다 내벼를 좀 형님에게드리는것이올켓다』 동생도 역시 이런생각이낫습니다。

그래 자리에서 벌떡일어낫습니다。『오냐 그냥갓다드리면 밧지안흐실것이다 그러니 밤중에 넌즛이 갓다가 드려야겟다』고 생각하고 그는곳 논으로나가서 제벼스단을 여러짐 저다가 형님 벼뗌이에보태노아두고 도라왓습니다。

×

잇흔날 형과동생은 각기 논으로 나가보앗드니 이상한 일입니다。휠신 적어젓슬줄 알엇는데 조곰도적어지지안코 전에잇던그대로잇습니다。『아니 내가분명히 어제밤에동생의논에 여러짐을 저다두엇는데 이것이 웬일일가』 하고 형은 동생의 논으로 가보닛가거기도 전보다만허지지안헛습니다 『아니 내가 꿈을꾼것인가』하고 그날밤일이상히녀엿습니다。

동생역시 어제밤에 애를써서옴겨두엇는데 전보다 줄지 안코 형님의 벼가 늘지도 안허웬일인지 몰라 이상하게생각햇습니다。

그러나 아모도 이런일이 잇는줄을 몰랏습니다。

그날도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깜깜한밤중에 형은 넌즛이나와 벼를 여러짐저다가 동생의논에 갓다두엇습니다。(동생도 역시 그날밤 늣게또 벼스단을 형님벼뗌이에 여러짐 저다 두엇습니다。

×

그리고 이튼날 나가보니 참 이상한일이엿습니다。그래도 벼가 줄지안허서 형과 동생은서로를 놀냇습니다。『이건 참귀신의 작난갓구나대체 엇지된 까닭이냐 웬일인지 모르겟다』하고 서로들이상히생각하고 또그날밤이되기를 기다렷습니다。

그날밤에도 그다음날밤에도 형과동생은 서로를 벼스단을 옴겻스나 아침에 나가보면벼가 서로줄어지지 안는데 놀냇습니다。

그러는동안에 동리사람들은 모다 타작을해서 다집으로 거더드리엿습니다。

어느날밤이엿습니다。공교하게도 그날밤은 형제가 가튼시간에 나와서 몹시 어두어서 벼를 지고 구렁에 빠지지안호려 조심조심 길바닥만 보면서 가는데 누가 오는지 저벅저벅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는고로 서로를 놀래서 발을 멈추고 웃둑섯습니다。

『그거누구요』

『그거누구요』

『나요』

『나요』

형과동생은 서로를 이러케뚝가티 뭇고 또대답하엿습니다。

그리하야 정다운 형제는 이제야 그수수꺽기가튼 일을알게되엿든것입니다。

그래서 뜻놉갑사히 밧기위해서 날마다옮겨날느든 벼를 이동리가난한사람에게 논아주기로하엿습니다。

머리압흔증낫는 간단한맛사ー지

머리압흔증낫는 간단한맛사ー지

우리차지

하늘에 게신 햇님은
우리를 퍽 귀해하신다。
우리가 보구십허서
하로종일 게시다 드
러가시지안니。
우리는 아침에 일즉
이러나서 햇님께 절
하자。그리고 공부하
다가 실때는 햇님이
보시는 데서 놀자。
그러면 햇님은 우리를
병업시 튼튼 하게 해
주신다。

(글쓴사람 오일종)

나라를위하야 『금을바처라』

구라파렬국가운데 영국과 불란서를 적국으로 외토라저잇는 이태리의 『못솔리니』는 전국민의 애국심을 선동하야 황금을 국가에 헌납하도록한 수단방법은 상당한 효과를 어덧답니다 일반국민 각자의 김히갈조아두엇든 보석、술잔、반지등 황금으로 만든귀중품이 예상외로 산가티 모여든답니다

─사진은 금속녹이는 공장으로운반된 금반지와 금패물들

新春懸賞當選小說 轉落 (十)
車自鳴 作 / 金熊超 畫

형의 모양은 참혹하기짝이업섯다 전신이 검푸러케 얼어부터서 거의 혼수상태에 빠저잇섯다

치룡이와 형수는 밤새도록 형의 소를 어더다가 밤새어더진 팔다리에 더운 소똥찜질을 하엿다

소는 아무때라도 작구 끕구 다니기만 하면 곳잘 똥을싼다 치룡이는 밤이깁도록 방가스헤서 대문 턴으로 소를끌고 들어와 다나가다 하면서 똥을 싸우고 형수는 그똥을 바다다가 찜질을 계속하군하엿다

그런결과 형은 밤이 이슥히 깁허서야 겨우 의식을 회복하엿다 치룡이는 위선 안도의한숨을 길게내쉬엿스나 긔맥힌눈물이 참을수업시 두볼을 흘러내리엿다

전년을 진빗 오백여량도 모다 형이투전을해서 진빗이엿다 천섬 품수업는 형은 나히갈도업시 누구말에나 속아넘어가길 잘한다 작년에 투전빗도 남의 속임수에 빠저진것이엇다 금년에나 정신이 좀드는술햇엇드니 금년은 또 야서긴가한 자식한테 속아서 괘니 끌려다니며 고생만하고 집안일도 틀녀지게할뿐외라 급기야는 이런고초까지 겪는것이다 일은 이제 죽게밧블텐데 공연한일로 저러케 알아누어잇서 자긔가 일못하는것은 물론이요 집안사람들까지 일을 못하게하니 복통을해도 시원치 못할노릇이다

그날저녁때 강좌수영감이 머슴들을 달이고 몸소 돌아다니며 논에벼안쓸어진것을골안이 떠나가게 책망을하고 내일은 식전아츰부터 룡떨어나서 벼들을 쓸나고당부한다 치룡이는 모두가 신푸녕스런기만하엿다

사람들은 무리에 죽탕이되다십히한 논판에 하얏케 헤여젓다 무리는 어제오늘따뜻한일긔에 전부녹아풀려서 논바닥이 진흙바다가되고 말앗다

울방아스꼴과 웹정스꼴사람들은 어른아이할것업서 총떨어나서 논으로나왓다 남자들은 수세기가된 벼를 베고 녀인들과 아이들은 가마니 망끄리 삼태동속의 그릇을가지고 빗자루로 수량량이된 논바닥에서 해갈투성이된 벼알을 쓸어못는다

우박오기전에 벼를버인 논이라고는 단지 강좌수네가불친 자작논밧게업다 그밧게는 누구네할것업시모조리 피해를 당하엿다

벼스대는 무리에마저서 도리깨로 짓찟긴것가티 호주군이 작바지고 그밋흐로 싯커먼케 흙투성이된 벼알이 쭉깔려잇다 수일전까지 황금(黃金)가튼벼가 그꼴이된것을 볼때 그들의눈에서 열불이낫다

강좌수가 도지나 감해주겟는지ー여태것수십년래로 해내려오린새한 행동을 보아서 도저히 감해줄것갓지도안코 이러케 생각하매 그들은 일손에 떠욱힘이줄엇다

강좌수는 갈투를 끼우듬이쓴후 긴대를든채 뒷짐을지고 우아레로 차다니며 눈이 뒤벌개서 퍽!퍽! 큰소리를 질은다

방코영감네 종가네도 집안이 몽터리나오고 길호창네도 호상녕감까지 허연수염을 날리면서나와서 논으로 와다갓다한다 양전이는 몹살로 행속하게 숫쳐해진얼굴로 어머니와들이 벼훌가틀가롬비이고쓸고하고 과수스댁은 이제겨우 열살먹은 어린아들을 데리고나와서 벼를베이면서 아들이 벼를잘곳는다고 쨍쨍거리고잇다 전날 벼벨때스사람들은 전부나온중에 집혀무러진 강바위와 노멀정이뿐이빠젓다

치룡이도 형수와가티 낭강건너 논으로나와서 벼들을베이고쓸고하엿다 치룡이는성태이슨는 벼라고는 한대도업는 벼스대를무주룸무룸하나 베일녀닛가 무질한이들엇다 그는 간간이 일어나서 머ー리 양전이의 모양을 힐끗힐끗 바라보군하엿다 형수도 꼬부리고안저서 벼들을쓸녀니 힘이드는지 잇다금 얄분 허리를펴며 심심한듯이 먼발치를 머ーㅇ하니 바라다본다

『평소에 그러케도 괄괄스럽은 섬미는 다 어데갓는지?……』

치룡이는 이 형수의 낙담한 모양을보고 코허리가 업씩해다 한참만에 치룡이는 형수의 가마니에 쓸어담은 벼를지고 강ㅅ가로갓다 흙투성이가된벼를 가마니채 물속에담가 헤워가지고 흙을 멍은후에 강가 모래사장에 멍석을깔고 널어말리는것이다

치룡이는 지고온가마니를 물속에담근후에 한참 추석추석 흔들엇다

LIBRARY 11.2.5

戲曲 春香傳 (四)

【禁無許上演】

柳致眞 脚色

男子 소인보기에는 다그려코그래요。

房龍 너도 그러냐?

使令甲 그저 그러쿠 그러치요

使令乙 (한동안바라보더니)소인은 어렷적부터 안친이잇서서 그런갑는지 뭐가뭔지 부―연 몬지밧게 안보이오

房龍 (노하야)허― 눈에도 상목 밧복이 잇다드니 정말 상놈의눈은 양반의 띄눈만도 못하구나。 … 너이들가운데 … 아는자가 잇 … 잘알것이오 … 야 저……정 말이냐? 네가 저처녀를 아느냐?

男子 그야 안다면알지오 소인이 길러내다시피한 계집앤걸요

房龍 이놈아 네가 나이가 몃살인데 저러케 큰아가씨를 길러내엇단말이냐?

男子 네 소인의 나이는 지금 갓서른이옵지마는 남과가티돈냥잇서, 일즉 장가만 들엇드면 저만한 딸이야 업겟소,

(使令들웃는다)

使令甲乙 하하하… 망할자식

房龍 이놈아 농담이아니야 자 여기안저라(男子를안저노코탁은히못는다) 네가 길러 내다하니 너는 상빕 그를잘알리

―대 대관절 그가누구냐?

男子 도령님 웨 이러케 정신 업시 서드시오?

房龍 (가슴이설레서 못견듸는듯이) 빨리 대어라 갑갑하다。

男子 네 누구의령이라고 소인이 안대겟소。그럼 아뢰리다。저애를두고 말슴 하오면 본읍퇴기 월매의딸춘향이라 하옵는데 아이가 생김새도 괜찬코 양전도하지오。마치절대가인은 못되겟지마는 우리호남에서는 제일가는 미인이라고 소문도 장히 놉소이다。

使令甲 헷……참 어지간하지오 도령님

房龍 퇴기의딸이라면 그러면 저 애가바로 기생이란말이냐?

男子 아니오 기생은 아니지오 대비바치고 속량하야서 기안에서 일홈을 어엿습니다。

房龍 좌우간 얘야 네힘으로 그 엇지좀불러올수업슬까?

男子 (펄석뛰며) 누구를요? 아니 여기 안즈서서 춘향이를 불너요? 원 어림도업소。그 계집애가 저래두 제따는량반의씨라구해서、도고하기가 바로 백두산 꼭대이야요

房龍 양반의씨라니?

男子 저―뭐라드라…올치 三淸洞 成參判令監이 南原에 府使로계실적에낫다는씨라나요 그래서 저편에서 데려다 도령님을뵈올지정이오어림업소 제발도런님생념도마시오

房龍 (左右使令을보고)아니 이 정말이냐?정말 그러케 도고하나?

使令甲 참 여간이아닙지요

男子 두말하면 헛입이래두그려시네。좌우간저애를두고、판속건달들은말할것도 업거니와 호남의 누구 누구 하는 량반님네 선비님네 수엽시 엽너본 모양이드마는 그애가 어듸 거들떠보기나하나요 거들떠보기는커녕 대문안에 들여놓도 아 정하베라도 하지요―모두들 춘향이집에 차저갓다가 대문에부친 립춘만바라보고는 뒤통수치고들 돌아간답 듸다

房龍 허허허…네가 내말을 조리노라고 공연히 거즛말을하나보다。아무러기로 기생의딸이 그대도록 도고하랴。

男子 소인은 거즛말을 하랑이면 든는사람이 거즛말인줄알

도 보이는데 엇더구오 내가 떠나 지금은 엇지면 … 리만치하옵지 남이 숭을거지 말은 일생에 해본일이업소。그러니 에여 춘향이불러 오실랑은 생념도마옵시고 그만 치 노시엿스니 들어가시지다 (使令甲乙 房子가 셧정하시리다)

(使令을내어 춤잔을칩어) 도련님 분부한다) 애통아 도련님 들어갈신다 나귀내고 자리치어라

房龍 (정신이썩돌아왓다) 마루ㅅ바닥에 매치며소리를지른다) 이놈 웨이러케 떵떵 ―이놈아!

男子 (정신이썩돌아와섯다) 용 이놈아!

房龍 (조용히)이놈아 지체말고 뛰여가서 분홍치마에 노랑저고리입은 그춘향이란 처녀를 불러오나라 얼른!

男子 (使令甲 욕곡지르며) 가보렴(使令乙더러) 옯자는 송이야 너좀갓다와다고

房龍 이놈아 입십소혼네가가봐야한다。이럴때에 두엇다가네 입십도쓰지 언제쓰겟느냐?

男子 혼난대도 백죄그러시네

房龍 (다시달내며) 이놈아 시무룩대지말고 선거름에 뛰어 갓다오나랑

男子 네 가기는 갑니다。

房龍 (할수업시 自嘲) 이놈아 저방자놈이 정말그네게해로 가는지 안가는지 좀바라보아라。

(使令甲乙房子가 걸어간方向을 바라본다)

使令甲 아주저놈이 인제 버들가지를 더위거쥐고서 군노사령의 거룸본으로 호롱 걸어갑니다그려。벌서 오작교를건너 큰길에 나섯군요。올지주막집호롱이에 들어섯습니다。

房龍 인재안보이지?웨일이야?

使令甲 대길낭구어를지냇소이다。저놈이 길을이젓나부다……웨 저것이 발자냐?

使令甲 아닙니다。그것은 산에서 내려오는초동이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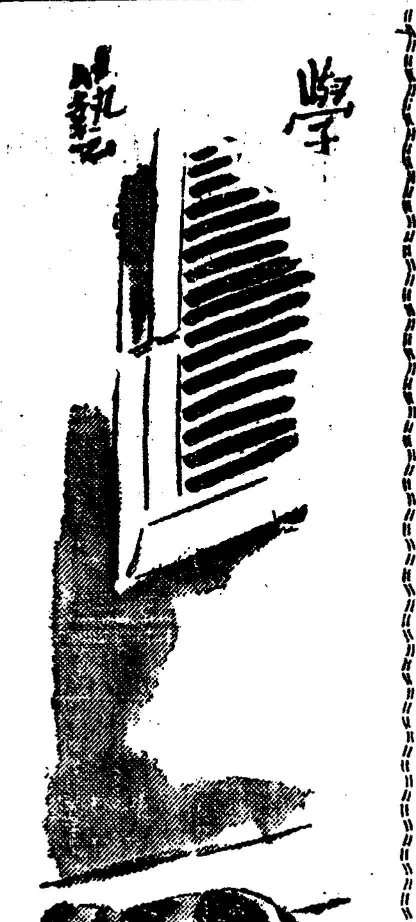
房龍 초동?

使令甲 그눔빠르다。……

使令甲 아、도련님 방자가 벌서 저그네터에 다엇소이다。

使令甲 아니저놈이 저망할놈이 춘향이를!

房龍 저런몹쓸한놈이 어듸잇담 내가안보는줄알고 저지랄이로구만、



正音字整理의새提唱

그具體案에對한私見을述함

⑦ 洪起文

音標의廢棄

訓民正音과 字會字母에는 上平去入 四聲의 音標가 잇다。이 四聲의 音標를 가지고 漢字에 表示하는것은 無妨하나 朝鮮語에까지 表示한다는 것은 無理다。그럼에도 不拘하고 訓民正音과 字會字母에서는 個個의 朝鮮語에도 그 音標를 달아 노핫다。例를 들면 아래와 갓다。

(訓民正音諺解에서)

文字와로서르흘러通티몯하논디라故로愚民이有所欲言하야도(下略)

(訓蒙字會에서)

믈읫 글字ㅅ의노ᄑᆞ며ᄂᆞᆺ가오미 다字ㅅ겨틔點이이시며업스며머여저금으로보라들사들거시ㄴ(下略)

그러면 그當時 朝鮮語에는 四聲이 잇섯든가? 그랫다가 그後에 이르러 고만 消滅되어버린 것일가? 아니다。첫재 朝鮮語와 가튼 言語에는 中國語와가티 그러케 複雜한 억세든가 잇슬리 업고 둘재

近

緣語에 그例가 업서 唯獨 朝鮮語에만 四聲이 잇섯다고 보기 어렵고 셋재 四五百年來 朝鮮語의 變遷에 비치어 聲音上 그러한 激變을 認定하기 困難하다。分明 中國의 四聲을 그대로 朝鮮語에 適用하려고한데 지나지 못할것이다。訓民正音의 入聲加點同而促急이란句와 訓蒙字會의 平聲哀而安 上聲厲而擧 去聲淸而遠 入聲直而促이란句로 보더라도 中國四聲의 그대로 直輸入을 掩蔽하지못하는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그러나 이 音標는 事實上에 잇서서 完全히 廢棄되고 오늘 古典으로나아잇는터러 再論을 要할 餘地가 업다。다만 正音字整理를 말함에 지우하야 參考로 한번 들어 보앗슴이다。

音標의制定

音標의 不必要를 이미 陳述하얏거니 또무슨 音標의 制定을 主張하는가? 不必要한 四聲의 音標는 廢棄하야 조흐나 다시 朝鮮語自體로보아서 必要한 音標가 잇는까닭이다。朝鮮語自體로 보아서 必要한 音標라니 그 어떠한 音標를 가르치는 것인가? 첫재 모든母音의 長短도 區別하여야 할것이요 둘째「ㅓ」「ㅕ」의 兩音도 區別하여야 할것이다。

長

母音의長短 쇠다리(牛足)와 쇠다리(鐵橋)가 다르고 밤(栗)과 밤(夜)이 다르고 말(語)과 말(馬、斗)이 다르고 돌(石)과 돌(週)이 다르고 담(痰)과 담(墻)이 다르고 길(丈)과 길(路)이 다르다。前者의 母音은 全部 長音에 反하야 後者의 母音은 全部 短音인까닭이다。諺文書札이나 乃至 文書記錄 書籍印刷에는 그렇게 區別치 안하여도 關係가 업것지만은 辭典이나 初學敎科書에는 明白히 區別하여야만 한다。또外國語의 長母音을 表示하는데 흔히「ㅣ」읏ㅆ닉 一 ㄴ 늑 一」의 母音과 混同되기 때문으로 재미가 적으니 萬一 長母音을 短母音으로부터 區別해내는 音標가 잇다면外國語譯音에까지 通用하는 便宜를 가질수잇다。그 音標론 、(콤마)쯤 조타、을 찍는데도 네音標와가티 左邊에찍는 것이 조흘뜻 하다。

問

「ㅓ」「ㅕ」의兩音을 가지지 안는 地方語는 問題外로되가지는地方에限하야는 그區別이 必要하다。그것도 勿論 日常使用을 通하야 區別하자는것이 아니요 辭典이나 初學敎科書가튼데 限하야 區別하자는 것이다。여긔는、(點)쯤 조타·도 또한 左邊에 찍엇스면 한다。

나는 이제 文字의增減、終聲復用初聲의解釋、竝書의解釋、順序의檢討 子音名稱의檢討 音標의廢棄 音標의制定等 입合項目에 直하야 正音字整理를 論述하얏다。勿論 이적은 論文으로서는 나의 말하고자 하든바를 充分히 다하얏다고는 닛지 못하나 그大略만이라도 밝히지못하지는 안는다。그러나 疑心치 안는다。

正

音字를 徹底히 整理하자면 그 書寫의形式을 뜨더고치는이만 갓지못하다。現在의 書寫形式은 첫재 單音字를 綴音字와가티 構成하는데 矛盾이잇고 둘재 거긔딸아서『가』와가튼 橫書『고구』와가튼縱書 混用하는데 矛盾이잇다。이矛盾을 除去하자면 縱書나橫書 어느한편의 統一이 絶對로 必要하다。그러한 統一이 아래서는 위선 싯그러운 綴字의 問題도 쉽사리 處理되려니와 印刷 書寫 모든實用에 잇서 적지안한 能率의向上을 보게 되리라고생각한다。

早……春……暮……林

中國劇의 聽戱에關하야

② 金友琴

背景及大道具等은 그리 使用치 안코 다만 小道具뿐으로 모든 劇의 場面을 進行하는 方式은 朝鮮舊劇에서 보는것과가다 近來或種의戱劇은 背景을使用하며 그

◇…道具…◇

의 設備도잇스나 그들의 所行으로 차라리 變則인듯하다

그래서 엇던場面에서는 背景을使用치안하고 엇던場面에서는 飾幕으로 代用하는수도잇고 엇던場面에서는簡略한 다시말하자면 乖離的背景을使用하는等 極히不統一하다

中國劇은 總評하자면 歌劇이라고宗義할수잇는만큼 모든劇을 歌劇으로보면 大差가업슬가한다 名俳優梅蘭芳의演出은 日本에서나 歐米에서나 쏘비에트聯邦에서나 大歡迎하는마큼 筆者의생각에는 中國劇이 現代化된다면 藝術로써 이社會의歡迎이 더욱클줄믿는다다

舞臺

中國의舞臺는 元來 中庭에서 인 方形의獨立된 建物이다 中國舞臺는 橋掛가업고 俳優는 正面左右의 傍門으로出入한다 觀覽客은 正面의 座席과 周圍의 廻廊과 中庭의 背天井下에서 보든것으로닷차우리 西北地方에서 端午佳節에 脚戱場設備와갓다 그러나 現今의劇場은 舞台와觀覽席으로된 一大建物이다

◇…最近…◇

의 新式 劇場이라면 로서는 中國 劇의舞台로서 何等特徵을 發見할수업다 京城안에 잇는 朝鮮劇場을모양으로 正面左右에 出入口를내고 舞台正面壁에는 色彩로畫한 繡노은 飾幕이라할가 門帳이라할가 그런것이 懸下하얏다 舞臺前面에는 幕을 使用치 안는다 딸아 字幕도업다 그리하야 劇의前場과 後場의區別은 樂手 即工人들의 交替로보아 推測할수박게업고 幕의開閉가업시 劇의演出이繼續된다 그러나現今의 北平開明劇場가튼大劇場에서는 最後의劇前 十五分間休息을한다 그래서 梅蘭芳이가 日本서公演할적 各劇間五分鐘式 最後의劇前十五分鐘의 休息을取하야 極히好成績을 收하얏다고한다 그런데 中國劇場으로서 古來의舞臺의 標本으로써 現存한萬壽山離宮內에잇는 戱殿을視察하면 古來의中國劇의劇場構造와舞臺裝置等을推測할수잇다

役

役은 即脚色을 稱하는바 觀劇에잇서서 그役을아는것이 第一

◇…肝要…◇

함으로 조곰詳細히說明할려고한다

果然 江湖十二脚色이란 무엇인지알수업스나 役에 依한 俳優의分類는 古來로 複雜하얏섯다 그래서 今日에도 아직 離實한 區別이업고 … 잇슬뿐이다 役은大別하야 生、旦、淨、丑、末의五種이다

生은男子로 中國劇에 相當하고 旦은 女形 淨은 敵役 丑은 道化役 末은 端役이다

이五種의 大別을 更히細分하면 마루 本文에서는 그分類를 不拘하고 實際觀劇의便利를 爲하야 說明하려한다

一、老生 生의一種으로 正生이라稱하야 中年以上의 老成男性이라

◇…男性…◇

을扮하는役으로 末도 此에屬하야 假髥을 부치는대서 正生과區別되는 兩種의役을 通稱하야 老生이라한다

男性의 主役으로 中國劇은 大部分老生劇이다 主로 뺨을 稱하는役이니 元來表情과 動作及臺詞로 男役을 稱하다 老生은 善人 正人을 代表한것이아니고 善人 正人을 代表하는 劇中에 局限될것이 아니라 그러한 狹小한 範圍에 局限될物의例를 드러 말하는것으로 老生의 主役으로 中國劇은 大部

그러나 그것은 그扮하는人物이 그것의 役에 依하야 生의 眞似를 扮하는 人物 中에 老生은 天人 思凶(?) 이잇스나 이것도 普通으로 老生이라 稱하는것도 內 (?)

新春畫壇의喜消息

朝鮮美術院創設

오래동안 寂寞하든우리 美術界에新春을 마지면서 반가운 消息이하나잇다。일즉부터 우리美術界에 令名이놉흔 金股鍋、許百鍊(以上東洋畫)朴廣鎭(西洋畫)金復鎭(彫刻)四氏의 發起로 朝鮮美術院을 創設하기로 되여벌서 市內 中學洞二○番地에다가 基地를사고不遠間 그建築에 着手하겟다는데 斯界의 研究發展에 資益되도록 貢獻하것나하며 特히展覽會를 만드러서 一般에게 提供하기도開催하야 一般에게 提供하기로한다는데 斯界의 한큰文援을 바란다고한다

創造的精神과 우리詩歌의當爲性

⑤ 尹崑崗

詩人個人의內部에 精觀性을가진「푸치부르·이데올로기」의 繩目으로부터 自己解放을 爲한 批判과 分析과 洞察에依하여、人間性에잇서의 有益한것과 有害한것과를 갈러내는 칼보다도 서슬이 심퍼런「批判的精神」을 必要로하는것도 그때문이다。그리고、詩的創作에잇서 그技

우는 아릿한 關係―이것은 참으로 참된詩人이 가지고잇는바 全肉身的苦惱의것이다 그러한 意味에서 詩人의 任務는 그러한 意味에서 그러한等類의 人間이 存在하고 또한 압흐로도 存在할진대 그는 눈트든人일것이요 또한 밧듯이 二十世紀의 푸르돈君―과가튼人間의 典型일것이다!

그리고 우리들 새로운 世代의 젊은詩人들은 過去에 人類가 가젓든바 온갓偉大한 詩人의 詩에서 批判과繼承之道하여 自己의 肉과 血을 만들 敎養을 攝取해야 될것이다!

過去가 나허준 時代的雰圍(?)를 例하면다면푸쉬킨·하이네 우리는 온갓것을 攝取할수가잇다 그들이 取한바 그時代의 온갓 矛盾의 變化로서의 表現인 그들의詩(되―테、푸쉬킨、하이네)에서 그時代에 잇서新興「아메리카」만이가질수잇는 前代的天才詩人(휘트맨)의詩에서우리는 온갓것을 攝取해야될것이다!

휘트맨그는 天上的 幻想界로부터 過去의 瘦瘠로부터 詩를 불러 돌리고、그것을 大地우에 直立식힐수잇섯다 十九世紀의半分을過渡한、浪漫主義가 支配的潮流로서 自然主義압헤 玉座를 빼앗기고잇슬 當時에잇서 唯獨新興아메리카만이 가질수잇는時代的天才詩人으로서의 그自身의 말을여기에 傾聽할必要가잇다!

『나는 나의詩「草葉」의 根底에 因襲的인題材의 온갓것을 拒否하엿다、無意味한修飾과 戀愛와 戰爭等의 赤裸裸한 構想과、奇怪한 世界의詩歌에出現된 英雄談傑과 一請으로表現하면、單純한美를爲한것―傳說·神話·로―맨스婉曲法·韻律―은 探擇하지안햇다。바야흐로 成熟되면서잇는 바 十九世紀의人間의 가장多數의 普通人과 그의個性、그리고 特히 現在 아메리카合衆國에잇는바 그들의 豊富한 實例와 實際的職業과의 渦中에서 나는 探擇한것이다』(十一月의枝)(完)

今春 各學校試驗細規

(詳細는 當校로 直接問議하시오)

梨花女子專門學校

- ▲募集人員 文科約五十名 音樂科約二十名 家事科約三十名 (右各科中 別科生 若干名)
- 第一學年 各科 若干名
- ▲申請期限 三月二十日까지
- ▲試驗日字 三月二十一日
- ▲試驗場所 同校
- ▲試驗科目 國語 作文 英語 音樂 家事

崇實專門學校

- ▲募集人員 文藝科 四十名 農學科 三十名
- ▲申請期限 三月二十日까지
- ▲試驗日字 自四月六日 至八日
- ▲試驗場所 同校
- ▲試驗科目 國語及漢文、英語、數學、歷史、博物

京城女子商業學校

- ▲募集人員 本 科 百 名 專修科 五十名
- ▲申請期限 本科는三月九日까지 專修科는四月九日까지
- ▲試驗日字 自三月十日 至三月十二日
- ▲試驗場所 同校
- ▲試驗科目 本科는國語、算術 專修科는 國語、英語、代數、平面幾何

鎭南浦商工學校

- ▲募集人員 商業科 約五十名 機械科 約四十名
- ▲申請期限 三月五日까지
-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 至十四日
- ▲試驗場所 同校
- ▲試驗科目 算術、國語

梨花女子高等普通學校

- ▲募集人員 百名
- ▲申請期日 三月十日까지
- ▲試驗日字 三月十三日
- ▲試驗場所 同校
- ▲試驗科目 國語、算術

淑明女子高等普通學校

- ▲募集人員 百名
- ▲申請期日 二月末日까지
- ▲試驗日字 三月七、八、九日
- ▲試驗場所 同校
- ▲試驗科目 國語、算術

京城保育學校

- ▲募集人員 五十名
- ▲申請期日 三月卄日까지

寧邊公立農業學校

- ▲募集人員 五十名
- ▲申請期日 三月五日까지
- ▲試驗日字 三月十二十三十四日
- ▲試驗場所 同校
- ▲試驗科目 國語、算術

密陽公立農蠶學校

- ▲募集人員 四十名
- ▲申請期日 三月十八日까지
- ▲試驗日字 三月卄二卄三卄四日
- ▲試驗場所 同校
- ▲試驗科目 國語、算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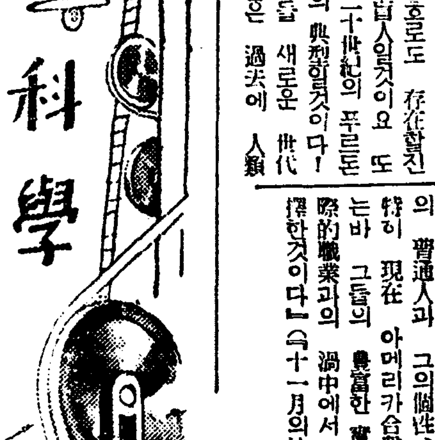
高敞高等普通學校

- ▲募集人員 五十名
- ▲申請期日 三月卄日까지
- ▲試驗日字 三月卄三卄四卄五日
- ▲試驗場所 同校
- ▲試驗科目 國語、算術

- ▲試驗日字 四月一、二日
- ▲試驗場所 同校
- ▲試驗科目 算術、國語 常識 體格

X光線 科學 治療에關하야

⑤ 李富鉉



렌트겐線에依하야 生殖器가 그 作用을 일흠은 明白한 事實이다。特히 男子에 잇서서는 이目的을 達하기는 容易한것이다 或不義의 姙娠을한 딸을가진母親으로부터 落胎를 식히여 달라는 請을 바들일이 잇스나 이것은 全然 不可能한바 입니다 大量이여야함으로 母體에 無害하게는 到底히 不可能한것이다 避姙은 可能하며 實驗으로도 利用된다。

2、淋肥腺結核렌트겐治療

淋巴腺結核은 普通朝鮮서는 連珠瘡이라고한다。普通 所謂連珠는 頸部에만 잇는것가티 生覺하는이가 다흔것가트나 頸腺結核이 第一만흔것은 事實이나決코 頸部에 限한것은 아니다。腹部腹膜에도 잇는것이다。

이所謂 連珠는 難治의 病이라는것은 萬人이 認定하는바이며 따라서 多種類의 藥과 療法이잇스나 效果는 神通치안타 外科의 發達함을따라 手術이第一效果的이요 根治의 唯一한方法인것이다。그러나 렌트겐이 最近에 이르러 急速히 進出하게되엿스니 手術을 比較하면 다음과 가티 外科的手術에 依하야 菌이 犯한 腺을 完全히 摘出할수가 잇는것은 事實이나 菌의 犯함을 바든 腺이라도 아즉 적은것은 全部 摘出할수는 업는것이다。그럼으로手術後에도 再發하는 率이 相當히만타 이에 比하야 렌트겐照射를하면 그照射部位內에 잇는 腺은全部렌트겐의 作用을 밧게된다。다만 렌트겐은 內部가 化膿한後에는 듯지안음으로 이가튼것은 外科醫의 손을빌어야한다。그리고 手術을하면 多少痕跡이 남는것이니 이痕跡은 女子들에게잇서서는 特이 美를損함으로 될수잇스면 이것을 避하고십흔은 人情의 自然이다。렌트겐治療는 痕跡을남기지 안는 利點이잇슴으로 最近에는 外科에서도 될수만 잇스면 手術을 하지안코 렌트겐治療를勸하는現狀이다。다만 렌트겐治療는 高價임으로 經濟上누구든지 利用할수업는것은遺憾千萬이다。

3、惡性腫瘍의 렌트겐治療

惡性腫瘍中에도 癌腫과 肉腫이만코도 惡性이甚한것이나 그外에도 모든腫瘍에 렌트겐治療가 施行하고잇다。이가튼腫瘍은 手術以外에 다른手段이 업스며 手術이不可能할때는 렌트겐治療以外 다른手段이 업다。그러나 手術이可能할때도 手術한後 完治를期하기爲하야 렌트겐治療를하는것이普通이다。

3、鎭痛及鎭痒劑로서의렌트겐

無論 무슨原因이든지 疼痛이 甚할때 特히 炎症으로因할때에 렌트겐을 照射하면 疼痛을 어느程度까지 鎭靜식일수가잇다。여기에서 特記할것은 淋毒性關節炎이니 元來 이淋毒性關節炎은 疼痛이甚한것이나 렌트겐治療를하면 一回에疼痛이 顯著히減하고 三回內外에 疼痛은 完全히업서지고 完治後에 決코關節作用을 害하지안는것이다。

그리고 몹시가려울때 例를들면 濕性이나 急性濕疹靑瘡等이 잇슬때 렌트겐을 放射하면 一日後면 가려운症이 大部分업서지고만다。勿論 렌트겐線自身이病的組織을 破壞하지만 가렵지 안음으로 극지를안케되여 病의治癒는 速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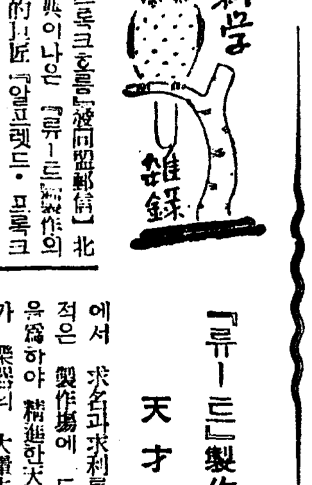
4、皮膚病의렌트겐治療

漫性皮膚病의 大部分은 렌트겐治療를하면 그效果는 大體히 좋은것이 만흔것이나 皮膚病이라는것은 種類가 多種이어서 一般的으로도 알지못하는것이 만타。그럼으로 여기에서 본바는 常識이라는 範圍를 버서낫지 아니할것이다。그中만흔것만을 조금으로 써보면 急性及慢性濕疹 特히慢性濕疹은 렌트겐에依하야 完治할수가 업스나 完治할수가 잇는것이다。

다음에는 靑春男女들에게 生理的으로 發生하는 여드름이니 이것이 生理的이나 度를지나치면 一種의病이라고할수잇다。靑春男女들 特히 處女들은 이여드름으로因하야 苦心함이 不少한것이다。그러나 이여드름은 藥이나 化粧品으로는 잘나아주지를안는다。여기에 여드름의 最新療法으로서 렌트겐治療가 登場하게되엿스니 그效果는 百파―센트이다。二三回照射에 依하야 完治할수가잇는것이다 이와가티 렌트겐治療는 廣汎한 活用領域이 잇스나 이만주리기로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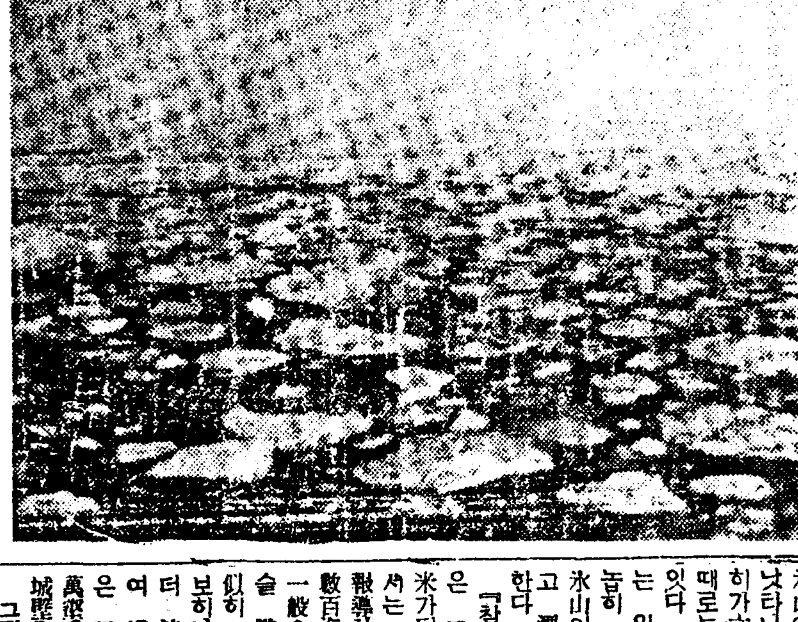
七、結語

以上띄드겐을 常識的으로 쓰느라고썻다。그러나 讀者들이 읽기어려운글일것을 잘아는바이나 우리新興醫學으로서의 렌트겐을 理解하기에 一助가된다면 무엇보다 多幸으로 生覺한다。쓰고보니 筆者自身은 決코誇張이라고는 生覺되지 안코나렌트겐을 宣傳하는것가티되엿다。그러나 事實은 좀더자랑할만한것이만흔것이다。다만 렌트겐의缺點은 그受診料金이나 治療料金이 太高한것 뿐이다。따라서 大衆에 널리利用되지못함은 遺憾이나 現下의 情勢에잇서서는 不得己한것이다。(完)



『류―트』製作의 天才逝去

『스톡크홀름』(波同盟郵信) 北歐瑞典이나은『류―트』製作의 世界的巨匠『알푸렛드·프록크』는 最近 스톡크홀름近郊의 自宅製作場에서 忽然逝去햇다。그는 그의全生涯를『류―트』製作에 밧처 華麗한 樂壇의 뒤에서 求名과求利를 하지안고 적은 製作場에 드러안저 藝術을爲하야 精進한天才이엿나 그가 樂器의 大量生産을 極度로嫌惡하며 모든 機械製造를 것을 製作所에 入請해두는것을 不許하고『류―트』의 如何한部分이라도 自己의 손으로서만드려 自己의손으로調律햇다고하는것은 有名한話인바 그의製作한『류―트』는 天來의 妙音을 發揮할뿐 아니라『류―트』그自體도 高尙한 藝術品으로서 天下의 名器이다『스트라디바리무스』의『바이올린』과 共히 世界音樂家의 垂涎不禁케하는것이다 그의日常生活은 極히質素하엿으며 謙遜하야『류―트』를 製作하는 틈틈이 讀書로서 樂을 삼엇스며 英國의 藝術評論家『윌리암·모리스』와『존·라스킹』에傾倒하엿으며「大量生産에는 藝術이 업고 참다운藝術品은 全部 손으로 만드지안으면 아니된다」라는 主義를 抱懷하엿다『프록크』의 逝去의 報에 瑞典의 新聞은 모다 그의죽음을哀惜하는 一文을揭載하여 「世界의 音樂界는 名人을 잃엇다」고 깁히哀悼의 意를表하엿다



◆……南極의氷原……◆

科學常識 流氷山에對하야 (上)

李昌達

北極圈內의陸上과 南極大陸에 네려싸인 皚皚한白雪은 近萊의 地上의 窪地에凍結하여서 漸次堅氷으로 되여간다。그래서 그谿谷을 메우는것이 氷河가되고 平坦한原野에 形成되는것이 氷原이라고 하는것이다、그럼으로 堅氷으로서 累積하야 大層을 이룬는것은 그뚜께가 實로一千米突이나 되는것이잇다。그래서此等의堅氷은 그自體의重量과 그背後에 累積된 水塊의壓力에依해서 陸地面에 相接하는곳에서 融解作用이 생기는때문에 雪崩과가티 徐徐히 陸地의傾斜面을따라 滑走하다가 그前端이海面에到達하엿슬때 裂離되는것이 一大水塊가되는데 그것이 海流나風波에떠여서 漂流하는것을 氷山이라고한다。그럼으로 다아는바와가티 氷山이라는것은 決코 海水의凍結한것이아니고 陸上에서 形成되여든 陸氷이 海面에떠도라다니는 氷塊인것이다。그럼으로그 表面에는 岩屑이나 石礫가튼것이 附着되여잇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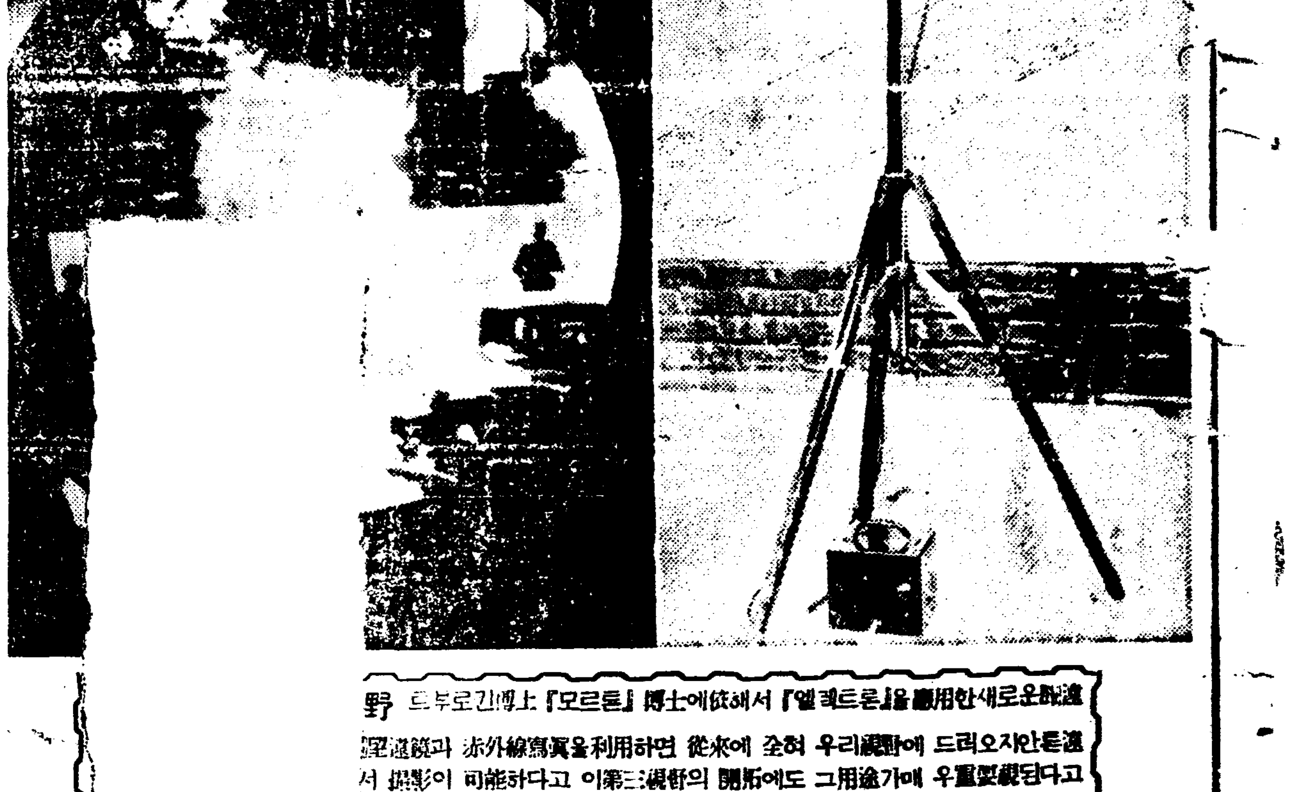
그러면 氷山은 어듸第一만흔가 하면 北氷洋에는「그린랜드」의西方即「빠―핀灣」附近으로 부터南方되는「뉴―파운드랜드」에 이르는 海面인데 南氷洋에서는 特히로스海이다

氷山에는 퍽큰것이잇다北氷洋에 나타나는 氷山에는 海面上의高가 六七十米突되는것이 만코나 때로는 八十米乃至百米되는것이잇다 探險家 드르가리스키―氏는 일즉이「그린랜드」西海岸에서 놉히 一百三十七米라는 巨大한 氷山이悠悠히 南方을 向하야 漂流하는것을만난일이잇다고한다

『참렌자』號는 南氷洋의 氷山은 그놉히가 普通二十乃至七十米가되지마는 기리나 幅에잇서서는 數千米突이되는것이잇다고 報導하고 잇는데가리나幅으로는 數百海浬에 밋치는것이가금잇다 一般으로 氷山은 海面에 떠잇슬 當時에는 卓狀을 모하야 恰似히 城壁이 떠잇는것과 가티보히나 漂流中에는 陽光을 바더 波浪에 씻기여 融解變形되여 雜多한 形象을 現하고 或은 猛獸가 埋伏한것과가티 或은 萬丈千峰이 屹立한것가티 或은 城壁을바라다보는것과갓다。

그러나 此等雄姿도 오래 漂流하는中에는 드듸여 融解消滅되여버리는것이다。

北極地方으로부터 漂流해나오는 氷山이 北大西洋에나타날때는 五月頃이가장 만타。即 北緯四十五度近處까지 떠나려온것이다。一九一三年三月中의 巨船「타이타닉크」號가 英國으로부터「뉴―욕」에의 航海中一大氷山에 衝突하야 沈沒하고無慘히도 多數의 船客을 海底의 藻屑로 化하게한 悲劇의遭遇은 非常하게하며 오늘날까지도 戰慄을 禁치 못하게한다。



野 트부로긴博上『모르톤』博士에依해서『엘렉트론』을應用한새로운望遠
望遠鏡과 赤外線寫眞을利用하면 從來에 全혀 우리視野에 드러오지안튼遠
서 撮影이 可能하다고 이第三視野의 開拓에도 그用途가매우重要視된다고
撮影한寫眞과 그『엘렉트론』望遠鏡

黃昏【1】

韓雪野 作 安夕影 畫

가정교사 (一)

아츰안개에 사로잡힌 태양이 바로 동글머리에 갓가히와서 일변김빗으로 물고잇다 무거운 공기가 고가(高價)한술내새가리구수하다。

꿈의아츰이 자욱한 아지랑이와함께 개이게되면 아름프레푸른빗을 먹음은 대지(大地)의봄뜻이 그윽히 늣겨진다。

려순(麗順)은 교실소제를 마치고 다른때보다 밧분마음으로 교문을 나섯다。인제 달포만지나면 그는 S녀자고보를 마치게된다。졸업후에는 어찌될까?

—요새는 이런생각이 한시도 그를떠나지안는다。

지난스무해동안 거진 그늘에서 자라난 그의가슴은 새삼스럽게 뒤설네지 안흘수업다。졸업이라는 한줄기광명을 바라보며 그는도리혀 회고와전망에 떨리는 것이엇다。깃버야할 이봄은 깃븜보다도 여러가지의 새론운물 안불 그에게 갓다준다—

(하만온 사람중에서 나는 웨——?)

남다른 역경을 그는 산산히 찌저버리고도십헛다。

허나 주인집갓가히오며 제몸을 한번 죽 살펴보는순간、

『그래도!』

하는 한줄기 히망이 솟앗다

—학교성적이 썩조흐면 교비로 상급학교까지 가게 될지도 모르지 그러치안흐면 취직이라도 쉽게될지모르지…

그는 불현듯 허수한 자기의 몸을 꽉 껴안드시 몸을 옷슬하며 주인집 대문안에 들어섯다! 비록 허수한 내몸이지만 나를 위하야 친후의 임각까지 나를 직혀줄사람은 허수한 이몸뿐이아닌가? 하는 생각이낫든것이다。그는 어떤경우에든지 제몸을 스스로 버리지안코려하엿다。

그가 막 중문대문에 들어서랴고할때에 그집룰재아듣 작난꾸러기 경일(京日)이가 난데업시 무중 그의엽구리를 쑥빼저뛰여나온다。

그는 옷삭하고 놀랏다。

발서 사변철이나 사는집이건만 들어서는때마다 서룩서룩한생각이도는 그는 조심스러히중문안 제방압헤 이르는순간 눈뿌리가 떠끔해젓다—

『요놈의색길 어떡허면조아』

그는 바르르떨리는 손으로쭉 마루우에 뒹굴고잇는 자기의치솔을 집어들엇다。걸으구두약이 엉키여붓고 헐은 형지업시 모즈라젓다。

『발에거는 구두를 남 이닥는솔로 닥거……』

그는 곳 경일이가 제질는각난이졸을 알아채고『오늘은 8서안될테다』하며 그것을 뒤채박그로 다조차나왓다。

끔도압까지 나와서 한참 이리저리살피노라니까 경일은 저-편곡마단천막압해서 무엇을 사들고 입을부질부질하며 까치걸음으로 뛰여온다。

려순은 전보대뒤에 몸을숨기며 그가오기를기다렷다。

『너 이걸 웨 이랫니?』

경일이가 무심히 압흘지나가라고할때에 그는 표독한소리와함께 치솔을 그의코압헤 밧삭내대엇다。

『뭐?……』

하며 경일은 주춤한다。『내가 그랫나!』

『네가 안그랫스면 누가 그랫니? 거짓말쟁이……』

『난 몰나……』

하고 경일은 과자를 꽉 깨물며 시침이를 딴다。

『거짓말 말어……그 구둘 금시 닥근거아니냐、이치솔로?』

눈썰만 쏘아저엇다。

『내건 엄나 뭥。어머니가 사다줬는데…』

『네거 잇는데 웨 해필남의치솔을 쓰니?』

『난 몰라』

하면서도 경일은 뒷장이켕기는지 비슬비슬 가버리려한다

『가길 어데로가!』

하고 려순은 그의팔을 꽉잡아채며

『요전에도 공책을 뜨더서 뒤지를 헤지? 그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리래든?』

려순은 속이 바지지끄려나서 말이 토막토막 끈허젓다。

『………』

『이따는걸 가지고 구둘 닥그라고 누가 그리든?……학교로 가자、선생님허구 물어볼테다。어서 가자』

하며 등을 밀엇스나 경일은 뒷걸음질을한다。『웨 못가、웨 못가는거야? 엄는 가』

『……난 안그랫다니까』

경일은 동내할성을 도망러듯 작난꾸러기지만 글을 가르처주는관계인지 대들지는못한다。

『거짓말하는엔 당장 출하이야。너 안가면 난 못가출아니。가서일를테니 두고봐라』

『선생 울아버지와친하대나』

『친하시면 일어난술아니?』

『상관 업데나』

하며 경일은 재바르게빠저 집으로 달아들어간다。

두雙의珍奇한因緣 勇將과美人

申鼎言

△

本問題의 大旨를 말하기 前에 먼저 野談이란것은 무엇인가 그 意義를 말하고저하니、이것은 지난 經驗上 野談그것의 뜻을 잘못아는이가 적지아니한것을 본까닭입니다。

野談은 根據업는 事實을 새로 創作한것도 아니오、古談도아니오 또는 巧妙한 話術로서 一時웃기는 才談도 아니오 흉내도아입니다。

그야 野談인들 어찌 우습境遇가업스며 흉내낼 必要가 업스릿가마는 이것은 話術의 能不能의 關係요 決코 野談의참된 意義目的은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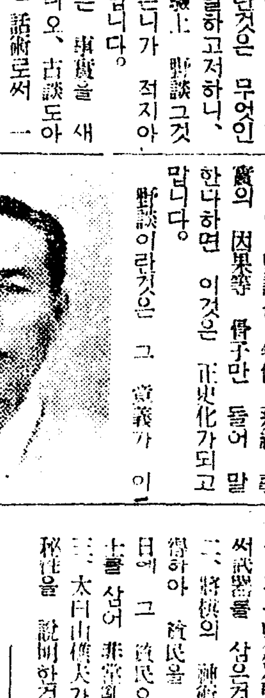
그럼으로 野談은 野談의 獨特性이잇고 漫談은 漫談의 獨特性이잇고 才談은 才談의 獨特性이잇고 흉내내는것은 흉내내는것의 獨特性이잇슴으로 다各各 獨特한 藝術性이잇다할수잇습니다。

『그러면 野談이란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分明히 史話 野史의 一種입니다。그럼으로 野談의 性格는 畢竟 正史와 乖離되지아니하는것이업습니다。

이에 野談을 年代、系統、事實의 因果等 骨子만 들어 말한다하면 이것은 正史化가되고 맙니다。

野談이란것은 그 意義가 이와가틈으로 말하는者、듯는者가 野談의 音義를 이저 버리고서 말하는것도 不可하고 듯는데에 誤解도잇슬것임으로 野談의 意義를 確立할수업는것이니 그野談의 意義를 確立한것을『野談』이라 말하려합니다



◇

이제『兩大將과兩美人』이라한題目그것도 亦是 野談道의 精神에 根據한 問題이니 兩大將과 兩美人은 그年代의 差異는잇스나 人格을 自重하고 奉公에 誠實한것은 共通性을 所持한 有意味한것이엿습니다。그리고 兩大將의 妻와、李大將의 姿은 비록『勇한者여! 네일홈이 女子다』하는 稱呼를 밧는 女性이나 그 智識과 抱負와 勇斷性이 이 丈夫를 凌駕할만한 女傑이엿습니다。

이 兩大將과 兩美人이 어떠한 奇緣과 異蹟을行하얏는가를 列擧할진대。

一、두루박(瓠箭)과 벌써武器를 삼으것。

二、將帥의 神術로서 巨財를 得하야 貧民을 救濟하얏고後日에 그 貧民으로하야곰、軍士를 삼어 非常한時에 臨한것。

三、太白山樵夫가 劍의 神秘性을 說明한것。

四、大賊巢窟에서 九死一生의 禍가 一轉하야 돌이어 그大賊에게서 뜻와 財의 讓與를 바든것。

五、疑問의 紅箭과 箭을 밧들고 有恨淚를 禁치못한것。

等等이니 彼 兩大將과 兩美人의 異蹟의 成果如何는 아즉、不問하고 오즉 男子로 태어나 男子다운 뜻을 가젓고 女子로 되어 女子로서의 職分以外에 또한 男兒의 실킹(智)에 넘치는、識見과 異蹟을 能히 行한것은 果然 後世의 吾等으로서 歎服아니할수업습니다。

以上이 本問題의 內容大略인 大略으로도 펴이나 模糊하고 어룽어룽한것에 未安하을 크게 늣기는바이나 紙面의 關係가 그 詳細한것은 口演의 時期以外에는 許치아니하는 까닭입니다 (끗)(寫眞은 申鼎言)

라디오

四日(火曜)

◇午後六時 童話 忠信舞踊競演童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 吳天泳
◇同七時三〇分 講演『山岳의自然美』 金尙鎔
◇同八時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半葉 三、弄 四、界樂 五、編 文明仙 金蘭珠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宇
◇同八時三〇分 映畵이야기『薔花紅蓮傳』 朴昌遠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楚漢歌』 二、唱劇調『赤壁大戰』 金昌禮 鼓手 丁元綏

第一放送

◇午前十時二十分(東)家庭講座
◇午後零時五分(大)琵琶
◇同二時 家庭講座
◇同六時 童謠獨唱
◇同六時二十五分 靑年時間
◇同七時二十五分 올림픽日獨團
◇同八時 東西部分追儺式實況中繼放送

五日(水曜)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念佛 二、打令 三、신아위 四、굿거리 奚琴 金德鎭 大笒 方龍鉉 細笛 鄭成俊 杖鼓 池龍九
◇同三時一六分 講演『動物의母性愛』 金在玹
◇同六時 피아노獨奏 一、即興幻想曲…쇼팡作曲 二、練習曲…同 作品二五의九 三、匈牙利舞曲第五…브람스作曲 四、華麗한大圓舞曲…쇼팡作曲 作品十八 金娟璡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算術』 李俊興
◇同七時三〇分 趣味講演『立春과花燈』 李秉岐
◇同八時 古談『射琴匣』 車靑吾
◇同八時三〇分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역금愁心歌 三、楚漢歌 四、遷遊歌 五、山念佛 六、夢金浦打令 金玉仙 大笒 金永根
◇同九時 피아노三重奏 一、피아노三重奏曲 D長調中에서 라르겟트와메누엣트…므찰트作曲 二、카바티나…라프作曲 三、피아노三重奏曲 A長調中에서 라르겟트…베ー토ー벤作曲 京城피아노三重奏團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大)婦人講座
◇午後零時五分 義太夫
◇同二時四〇分 (東)小學生時間
◇同三時一〇分 (東)敎師의時間
◇同六時 (金)어린이時間
◇同七時三〇分 (大)講演
◇同八時 (大)레ー뷰
◇同八時四〇分 (東)小唄
◇同八時五五分 (東)浪花節

六日(木曜)

◇午後〇時五分 하모니카二重奏 一、圓舞曲바람의結婚…폴作曲 二、美中美行進曲…수자作曲 三、가봇트…고섹크作曲 四、유쾌한牛乳배달부…카탤프作曲 五、트로바도ー레…베르듸作曲 六、金국의대장간…미카엘리스作曲 金壤顯 宋一允
◇同三時五分 食物講座(一)『穀類食物』 金浩植
◇同六時 連續童話劇(一)『꿈에본仙女』全三景中第一景 (配役) 순자(순지의작은동생)…李仁善 순옥(순지의큰동생)…洪敬義 순길……閔貞淑 순지봉모(一)…權寧亨 同(二)…柳德熙 女王…李慶順 仙女(一)…金順姬 同(二)…鄭小華 同(三)…鄭貞順 京城어린이放送會 指揮 金虎俊
◇同六時二五分 復習時間『國語』 田川孝雄
◇七時三〇分 講演 알콜의害毒 醫學博士 任明宰
◇同八時 방아타령外 一、방아타령 二、도라지타령 三、노래가락 四、사발가 五、月下情抱 六、노래가락 李眞紅 細笛 高載德 短簫 崔壽成
◇同八時二五分 流行歌 一朶紅 張 미스·리ー갈 伴奏 DK管絃樂團
◇同八時五〇分 名唱 金元鎬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勝商歌』 二、唱劇調『沈淸歌』 金元鎬 李東伯 鼓手 韓成俊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東)어머니의時間
◇午後二時 趣味講座
◇同六時 (東)合唱
◇同六時二五分 講演
◇同七時三〇分 (東)趣味講座
◇同八時 新日本音樂
◇同八時二五分 (東)淸元
◇同八時五五分 (東)浪花節

色다른映畵人紹介(3)

絶對映畵의信奉者 獨逸한스、리히터君

한스 리히터는 발타 루트만과 함께 獨逸映畵에 잇서 所謂『絶對映畵』의 信奉者다。

絶對映畵에는 이야기도 事件도 人間的인人間도 도모지 나오지 안는다。그歷史的現實함을 聯想시키는 一切의물건이 排除되는것이다。絶對映畵의根底를 이루는것은 心理主義藝術論에 對立된 絶對的藝術論이다。이것은 根本的으로 다른 두가지의길이다。心理主義의 藝術論이 體驗을 重要시하는데 反하야 絶對主義는 그러한 心的體驗이나 體驗을 全然無視하고 意識的 方法으로 寫實技術의 手段으로서 表現되는 認識的리合이라고 解釋한다。그럼으로 事實한것은 肉體精神의모든表現中에서 가장單純한 調和로 反發되는運動의 리스미칼한 根本機能이다。그러 映畵에잇서 動作의 數學的으로 確定되려고에따라 展開되고 決코조그마한 變態도 보지 안는다。色彩가새로운 觀劇의 되엔숀을 나라내나 色彩는 寫實的效果에 잇서서 나타날뿐 그調和 瞭想 裝飾價値에對하야 何等重要性을 認定치안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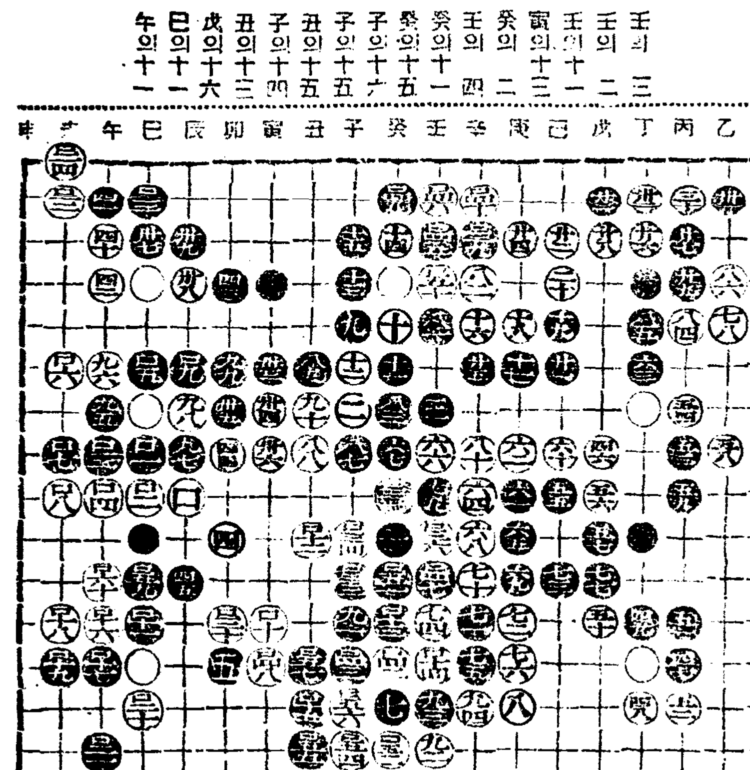
리히터는 現代의成熟한 生活을 가장單純한 形態로 還元시키어 그論理的合目的的 構成속에서 具體化하려고 한다。藝術의 生命은 數字라고 말한 노봐ー리스의 浪漫主義精神과도 一脈의相通을 가진다고 보인다

圍碁對局譜 =10=

本社主催

白 丁奎春 黑 權秉郁

●壬의三 ○壬의二 ●壬의十一 ○寅의十三 ●癸의二 ○壬의四 ●癸의十一 ○癸의十五 ●子의十六 ○子의十五 ●丑의十五 ○子의十四 ●丑의十三 ○戌의十六 ●巳의十一 ○午의十一



◆蔡極文談 黑이 癸의 十一刧을 刧數有餘로 引繼하고 北邊殘數이 西角까지 完結하니 局勢平復이 不幸中幸이로다 白은 用刧處가 相當치못함으로 寅의 十三으로 旣得權을 保有하고 先手를 取함은 是亦良策이다 雙方比較가 均衡에 輸在하니 危急은 別無하나 毫末差錯이라도 要加注意어라

오케ー四十餘名藝術家 東京大阪等地로音樂行脚

音樂映畵撮影코三月에歸京

오케ー레코ー드專屬藝術家 文藝部員과 羅虎永 姜日亭 李壽 李蘭影 金蓮月 江南香 孫牧人 東海亭 金鍾泰 生員 羅晶心 韓晶玉 金海松 音樂部員二十餘名 都合 林芳蔚 演藝外二十餘名의 四十餘名이 昨三日밤 十時五分京城驛을 떠나 日本內地로音樂行脚을 떠낫다

먼저東京本社吹込所에서 吹込이 끗난後로는 東京、名古屋、京都大阪、神戶等地에서 在留同胞慰安演奏會를 開催하는 同時에 東京에서는 東寶映畵會社와의 契約으로 朝鮮音樂映畵를 撮影한다음 三月初旬에나 歸京하리라한다 (寫眞은 三日밤 入車前의 本社來訪한 一行)

뉴코레아歌手 東京吹入行

뉴ー코레아歌手 金貞九、李花子、羅簡、金蘭芳、林鍾根等 二十餘名은 昨三日밤 關釜連絡船으로 東京으로 吹込의길을 떠낫다 사진은 當日 入車前 本社를 來訪한 一行

讀者社交室

百五十字써ー비스

▲左記冊子를 買入하고저하오니 古本을 가지신분으로 定價의 四乃至五割引으로 買却하실분은 左記住所로 通知하야주시오 一、山田谷口 生理學粹 一、下山丹波 無機化學、有機化學 一、山田物理學粹 一、林氏藥理學 一、井上小內科書 一、今裕近世病理學總論 一、三橋吉川 實驗外科學 一、鑿薺新撰産科學 一、石原(Ⅰ)眼科學 一、橫手衛生學講義 以上中一冊이라도 買入하겟습니다 直接通知하여주시오(慶南昌寧郡靈山驛前 德山醫院 朴兌圭)

▲距今三十餘年前 咸興郡守로 게시든 京城西部仁達坊 社稷洞에게신 李喬永翁이 當時에 咸鏡을 善治하셔서 至今까지 그頌聲이 높히남어잇습니다 이에그李翁의存在를 알어볼必要가 잇삽기에 茲以仰告하오니 惶悚千萬이오나 李翁의現住所와 現職을 一一히 詳記하여 下鄕하여주시면 感謝千萬이옵시다 咸南咸州郡朱地面長興里 韓庚鎬

▲本人의親弟와 本人의妻의親妹가서로서로사랑을하여와스며只今에와서는 서로떠러지지못할境遇에 到來하엿스니 兩人의 願대로 結婚을 시킬까요 엇지할가요? 下敎하여주시요 安岳 ○○○

▲本人이 五年前부터 農家副業으로 參門冬擧苗를 栽培하여오든中 그收支가有利한바 今年에는 原種子及苗株가 多量幾餘하엿기로 有意家에實費로 分讓하여드리겟나이다 全南順天郡順天邑長泉里 張翔碧

▲本人은 中等學校卒業生으로 受驗準備生이오며 普通學校生徒의 家庭敎師를 希望하오니 左記로通知하시면 即時 訪問하야 相議하겟나이다 京城府崇一洞九○ノ一 趙明彙

▲小生은 寒村서 開業醫로잇는中 漢方藥을 硏究코저하와 朝漢文解說冊子名及 販賣所를 下敎하옵시며 現權威漢藥者를 좀指示하옵소서 宣川水淸里 崔翊波

▲新聞、雜誌에 漢醫學論文을 쓰시는 趙憲泳先生의住所는 어대오며 또現在醫業을 開業하고 게신지요? 本欄을利用하시든지 直接下敎하시든지 하기를希望하옵나이다 元山府北村一八番地 李允武

▲手風琴(新品價二十八圓)中古品과 約開價의 기타ー 中古品과 交換하실분은 左記로 照會하시압 京城府崇一洞九○ノ一 (延斗炳)

▲本欄을通하야 古本商諸氏의게 告합니다 本人이 朝鮮書籍을 購得코저하오니 圖書目錄을 惠送하여주시오 主로朝鮮歷史朝鮮偉人傳記 朝鮮現代文學諸書의 古本을求합니다 (統營邑大和町五三 朴宗圭)

▲朝鮮史話集 又는 單本冊史話叢書을 多數求하옵는데 다른 書籍과 交換하실분은 急히通知하시요 그리면 交換書目錄을作成하야 付送하겟습니다(注意 戱曲化할만한材料가 豐富한冊을要합니다) 大田府市外卓民里 高花影

▲農村啓蒙運動線上의 鬪士諸氏를 住所와 氏名及各其詳細通知하여주시는분에게는 薄謝를仰呈하겟습니다(鎭南浦局私書函第三四號)

▲本人이 煙草自動販賣機를 發明하엿는데 專賣局에서 特許願을해도 조타는 承諾까지 어덧습니다 本人은 職業關係上 特許를 어더서 製作販賣를 할수가 업스므로 누구시던지 有意하신분에게 이發明品을 讓渡하겟습니다 左記로 照會하시면 仔細히 通知하여드리겟습니다 (南川驛下溜川市內 姜炳玉)

▲洋裝과 洋帳撚紐線、製本熟練工及新全版活版機械熟練工若干名採用하겟사오니 有意하신분은 下記로月給希望條件付記하여照會要望 但酒草禁하는者에限함(鎭南浦三和町朝鮮印刷所)

▲朝鮮史書를 널리求합니다。特히 朝鮮語古文獻、佛經諺解、法語、眞言集類、吏讀古文書、時調歌謠集、外國語譯學書類等。무릇 朝鮮白紙板에 諺文이 들어잇는冊으로 오랜것이면 무엇이나 買受하겟습니다。朝鮮歷史에 關한 오랜史籍、野史、文集等이나 古人의 筆跡을 讓渡하실이가 게시면 書名을通知하여주시옵。(平壤府景昌里三九 梁柱東)

▲三十一日附本欄高原無能生에게 甲辰年陰十二月二十五日은明治三十八年一月三十日이외다 (京城親切生)

▲西大門韓生께答함 問意가너무 漠然합니다 빠이오린個人敎授 洪蘭坡(삐터ー會社) 洪盛裕(京保) 崔虎永(OK레코ー드)、피아노、金永煥(波明)金元福(京保)其他諸氏、聲樂、李升學(泰和女校內) 金文輔(現在는不明)、玄濟明(延專) 朴景嬉(昌信洞一四三)等等으로 枚擧不遑이며 이外에 提琴에李永石氏잇스나 住所不明、敎授料는 一定치안치만每月四圓ー六圓、其他詳細는直接敎授께問議함이조켓습니다(研究生)

▲左記를 問議함 一、新聞經濟欄用語解說(比較的完全한冊)書籍名、定價及發行所를 알려주십바랍니다 一、肥料에關한 完全한 書籍各各定價及 發行所를 알려주시기바랍니다

▲小生은 [illegible] 야 겨우 [illegible] 솜에 如然하 [illegible] 折되야 日夜慨歎하와 苦悶으로 [illegible] 烏만 浪送하옵다가 漢文을 [illegible] 서 三個年間 漢文을 勤讀하오나 新學問에對한 憧憬의 一縷는 남아잇서 東京某法制會員이되여 普通文官講義를 孜孜熱讀하고 잇습니다 辯護士書生及司法代書生 其他筆生으로 斡旋하야주시옵소서 (唐津求職生)

▲小生은 今年二十歲男이온데 지금까지漢文만工夫햇습니다 그러나時代의變遷을覺悟하고 今春부터 新學을專攻코저합니다 但自習으로三年程度는됩니다 今年內로六年程度를修學하고 明年에 上級校에갈希望이오니 京城市內에適當한學校를 指示해주시옵소서 (鄕生)

佛國最高勳章

미키ー마우스作者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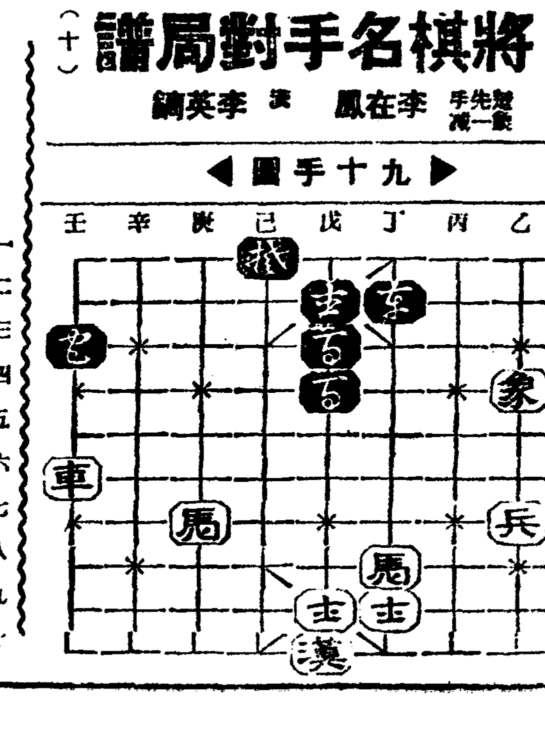
우숨의王者로 地球上數千萬人에게 銀幕과 印刷物을 通하야 哄笑의 愉快를 주는『미키ー마우스』『이미키ー마우스』를 맨드러낸『왈트·디스니ー』氏의 功勞에대하야『헐리우ー드』의 駐在領事 뷔라氏는 本國佛蘭西政府에서 보낸 最高勳章『레지온·드노르』를『디스니ー』氏에게 贈呈하엿다。—寫眞은 勳章傳達式

將棋名手對局譜(十)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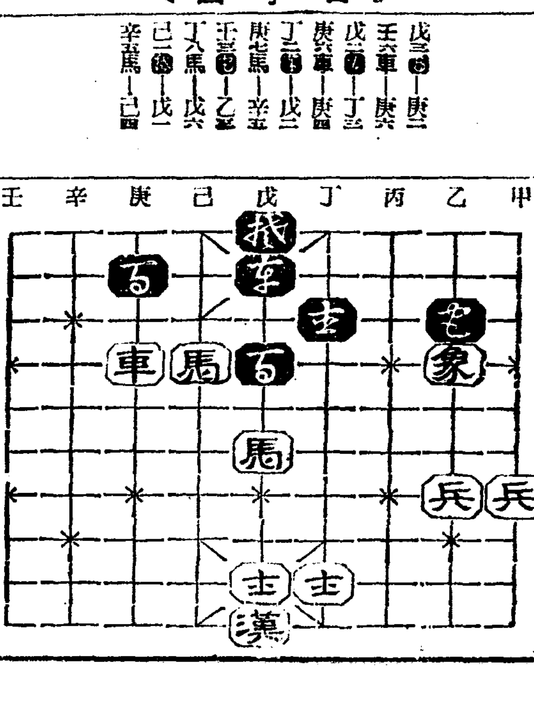
先手 李在鳳 漢 李英鎬

◀九十手圖▶



◀百手圖▶

戊三[illegible]─庚二 壬六車─庚六 戊二[illegible]─丁三 庚六車─庚四 丁二[illegible]─戊三 庚七馬─辛五 壬三[illegible]─乙三 丁八馬─戊六 己二[illegible]─戊一 辛五馬─己四



主催 野談同人會

혀끄테 電光石火

쏘다지는 奇辯才談

斯界의雄들이부르는三部曲

新春野談大會

二月六日 (舊正月十四日) 午後七時

本社大講堂에서

演題

野談 春夢 庚秋嵐

漫談 조선말가튼英語 울고살까 웃고살까? 黃材景

野談 兩大將과 兩美人 申鼎言

會費 大人五十錢、小人三十錢 (但朝鮮日報讀者에게는優待割引함)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曆

二月五日(水) 正月大 庚寅 (十三日) 乙巳 土 軫 平

●立春正月節 ●立春五日(舊十三日) ●雨水二十日(舊廿八日)

共軍兩大部隊合勢 安圖縣襲擊計畫

其他處處에 衝突이 頻頻하야 咸南對岸去益騷然

【咸興】 함경남도경찰부에 도착한 정보에의하면 무송안도(撫松安圖)현계에 이동하고잇는 ……사령(……司令)의일……명은 ……부근에이미 ……총사령 (朱司……)……명과 합체한 대세력으로 안도현성(安圖縣城)을 습격하여 동성을 점거하려고목하전비를 굿게하고잇는중이라고하는데 이런정보로인하여 동지방일대는 경찰대의 삼엄한 경계로 인하여 완연히 전시상태를 방불케하고잇스며 민심은 극도로 흉흉하다

그리고 륙도구 차초정자 (六道溝茶草頂子)아(兒) 경찰대원사십명은 지난일일오후열시경 삼도랑둔(三道浪屯)에서 개통중명에 토병단과 맛나교전한시간에 토병이명을 총살하고 장총탄약등 다수를 빼아섯다 이도구어로두(二道漁老頭)부근에잇는 토병쌍호(雙好)의 일대삼십명은 토벌출동중인 림강현 경무국삼포(三浦)지도관이 인솔한 일대오십여명과 이일아츰 미명동지부근에서만나 교전삼십분여에 이명이 총살당하고 권총등다수를 빼앗겻는데 토벌대측에 도사상자가 다수한 모양이라고 한다

무송현마강(撫松縣漫江)으로부터 안도현계에 출동중인 동현왕경찰대의 일대일백륙십여명은 일일오후구시경 동지마강에서동북약팔리가량되는 지점에서 약칠십명의 공산군(共産軍)을발견하고 전투한시간나머지에 공산군측사상명의 사체를남기고 공산군은북방에 퇴각하엿는데 쌍방에 모다사상자가 다수한모양인데아직상세한 보고를접하지 못하엿다 한다

工費一千萬圓으로 製鐵工場大擴張

兼二浦의將來發展을可期 萩野所長의聲明發表

【兼二浦】 삼릉제철(三菱製鐵)로로부터 지난소화十년이월 제등내각(齋藤內閣)의 국내제철강정책(國內製鐵鋼政策)에 의하야 전일본적으로 통제조직된 일본제철주식회사(日本製鐵株式會社)로 합동참가한 겸이포제철소의 그간제반공장과 사업확장의 뉴쓰는 종종은본지상에 부분적으로나마 보도한바어니와 동제철소에서는 국책에의하야 제반사업이수행되는만큼 언제나 동회사의 사업내용을 용이히발표치안튼바 지난삼일 오후두시부터 읍회의실에서열린적당회 석상에서 공식으로 추야소장(萩野所長)이 발표한바에의하면 실로놀나울만한 확장사업을 돌연세간에발표하얏는바 이제 확장공사의(總工費一千萬圓)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起業工事

一、熔鑛爐三基操業에追伴하는起業

(가)三五〇噸熔鑛爐建設一基工事(十二年末竣功豫定)(現着手中)

(나)第六號送風機新設工事(現在着手中)(十二年末竣功豫定)

(다)第四發電所及汽罐設備增設工事(現着)(十一年末竣功豫定)

(라)水道設備增設工事(未着)(十二年末竣功豫定)

(마)高爐瓦斯淸淨裝置工事(未着)(十二年末竣功豫定)

(바)骸炭爐七〇基及副産物工場設備工事(現着)(十二年末竣功豫定)

(사)高爐瓦斯除塵設備工事(未着)(十二年末竣功豫定)

◇一般起業

(가)第五送風機增設工事(現着)(十一年六月竣工豫定)

(나)江岸石炭荷揚設備工事(現着)(十一年末竣工豫定)

(다)厚板再熱爐一基增設工事(現着)(十一年三月竣工豫定)

(라)熔鑛設備工事(現着)(十一年末竣工豫定)

(마)小型送風機設備工事(現着)(十一年末竣工豫定)

(사)製鋼工場瓦斯輸送設備工事(未着)(十二年末竣工豫定)

(아)大型工場設備改良工事(現着)(十一年末竣工豫定)

(자)機械課設備補充工事(現着)(十一年末竣工豫定)

(차)運輸設備改良補充工事(未着)(十二年末竣工豫定)

(카)江岸第二期埋立荷役設備工事(現着)(十二年末竣工豫定)

(타)職工社宅七〇戶新設工事(現着)(十二年末竣工豫定)

(파)鑛滓搬揚新設工事(未着)(十一年末竣工豫定)

(하)病院增設工事(未着)(十二年末竣工豫定)

以上總工費 一千萬圓豫算

安州高普校에 벌서志願逕至

【安州】 강중등학교입학난이 옥심하다함은 세인이 주지하는바이어니와 평남안주고보기성회에는 인가도 나기전에 입학지원서가 매일 수십통식 답지한다는데 멀리경성 정주 순천등지에서 만히온다하며 압푸로 입학긔도머지안흔바 당국으로서는 속히 인가를 주지안흐면 입학지원자에 불소한관계가 되리라한다

安州青年親睦會 第二回定期總會

【安州】 안주청년친목회가 창립된지 어언삼년에 갓방면으로 만흔 사업도하엿거니와 작금년중에는 회내 여러가지 사정으로 회세가 다소 침체상태에 잇든바 간부제씨는 회세를 만회하기 위하야 지난이일 운내 대승관(大勝館)에서 제이회정기총회를 개최하고 가인원을 개선하고하오오시경 다과회가 잇슨후 동칠시무사히 폐회하엿다는데 신임위원은 다음과갓다

財務部委員 張得英外二人

文化部委員 金一大外二人

體育部委員 金聖奎外二人

長淵消防組에서 火災、盜難豫防

【長淵】 각지의 빈발하는 화재와 도난사건은 일반의 민심을 소란케하는이때에 장연소방조(長淵消防組)에서는 화재발생의방지와 도난의방지를 주로목적하고 지난일일밤부터 십일간 전소방조원이 분대하여가지고 순회하는터인데 특히 읍내의 울포수가 전연고갈상태에잇서서 화재가 발생하면 크게위험한 터임으로 일반의특별주의를 요하며 또한 정초노리로 밤늣게 편리친척이 모히여 노는중 문호개폐(門戶開閉)를 철저히 하지못하면 도난을당할념려가 잇슴으로 특별주의가 필요하다고한다

金允成氏盛事

【高原】 함남고원군 상산면 양천사주지 김윤성(金允成)씨는 고원공립보통학교 제생도에게와 상산공립보통학교생도전부에게 수신교과서(修身教科書)를 일일 배부하엿는데 일반부형은 물론 의 칭송이 자자하다고한다

二千名出席下에 密陽産組臨總開催

密陽決議合上初記錄

【密陽】 경남 밀양군 밀양읍내에잇는 밀양산업조합(密陽産業組合)은 예정과가티 지난이일 오전십일시부터 삼문리(三門里)밀양공립보통학교 대강당에서 조합장 손영돈(孫永暾)씨사회하에 동조합창립후 첫번회합인 제일회림시총회를 개최하엿든바 참석조합원이 실로 이천여명으로 회장내는 입추의여지가업고 회장박게도 들어가지못한 조합원이 수백명으로 밀양에잇서 결의긔관회합으로는 처음인 긔록적 대회합이엇는데 다음의 결의사항을 원안대로 전부 가결한후 동오후오시경에 무사폐회하엿다한다

◇決議事項

一、昭和十一年度事業計劃 豫算及 賦課方法決定의件

二、手數料及 利用料徵收規則決定의件

三、貯蓄奬勵 … 許可承認의件

四、新規借入金償還의件(一名)

五、新加入組合員承認의件

六、定款變更의件

가、上南面新倉里 … 南山里를本組合區域에編入의件

나、理事(名譽)二名增員의件

七、定款變更에依한理事一名補選의件

八、本組合의密陽商工產業組合會에加入의件

千餘會員을網羅 中華商工協會發會

三日興南에서擧行

【興南】 흥남읍에 거주하는 중국인은 상공업종사하며 그수는실로 천수백명에 달하는바 항상처들이부식자간에는 단체적 아모모임이 업슴을 유감히 생각하든중 천기유자연(千紀有子然)씨외 수삼인의 발기로 이들전부를 망라한 흥남중화상공협회(興南中華商工協會)를 조직하기로하고 금삼일그발기인 일동의 보고와함께 성대한 발회식을오후시부터 당지흥남관에서 내빈다수를 초청하고 좌기순서로 거행한바 흥남에서 처여회원을 망라한이러한회합은 전에일즉이 보지못하엿든 일이라한다

一、振鈴開會

二、全體肅立

三、全體向國旗行三鞠躬禮

四、會長報告擧署長訓論成立本會三宗旨

五、副會長致謝詞署長訓後凡係會員均向署長行三鞠躬禮

六、來賓詩講

七、各會員自由言論

八、討論會

九、選擧

十、呼口號

十一、振鈴散會

한글原本을教材로 二個所夜學開設

갸륵한楊口人士들의向學熱 本報本局서學用品提供

〝배워야산다〟

【楊口】 아는것이 힘! 배워야산다라는 표어아래에서 전조선각지방곡곡에서 문자보급축진을제긔하자이에향응하는바는위대한 수자로서 실적을내이고잇는바이거니와 강원도양구 에서도 지난이월일일부터 당지보통학교와 면공동주최로 미취학아동 강습회와 부인야학회를 개최한바 수강생은 남녀일백여오십여명에달하며 강사는 유치원보모신정옥(辛貞玉)씨와 보통학교 호인자(扈寅子)훈도외수씨가 담당하엿다는데 과목은 본사발행 한글원본을 교수하고 시일은이월말일일까지 일개월이라는바 사십내외의 부인들이 가갸! 거겨를 외우고 배우고서는 치우에떨면서도 열심수강하는것은 얼마나향학심의 큰발로임을 엿볼수잇는바이며 본보양구지국에서는수강생일동에게 교재를 배부하고여명공책등 학용품일체를 제공한바 수강생이 날로 증가한다고한다

白首에도有靑春 七十男女結婚式

蔚山郡下의珍奇話題

◇寫眞=新郎 朴琪館氏(七〇)와 新婦姜斗必(六二)女史

【蔚山】 경남울산읍내에서는신춘벽두 청춘이란 젊은사람에게만잇는것이 아니라는듯이 칠십세의 신랑과 륙십이세신부의결혼식이 잇섯다 신랑은 무의무탁(無依無託)한 처지에잇스나결백하고 강직하다는 칭송이잇는 박민용(朴琪館)(七〇)이란 로인이오 신부는 울산읍내에서 기생출신으로 사오천원가량의 재산을가진 강두필(姜斗必)이란로파로서 특히강로파는 평생에남의본처가한번되여보지못하고 호적상애처녀로 늙어죽는것이 한이어엿스나 함부로 이성을 구하지안코 박로인도 역시 사십변이넘도록 독신생활을 계속하는중 천생배필로 우연한 긔회에 이 성립되여 지난 일일 한산동(韓山洞) 신부자택에서 정식결혼을하엿다

江陵郡下大火

【江陵】 이일오전 한시반경강릉군옥계면 현내리(玉溪面縣內里)구장(區長)정연진(鄭然振)집에서발화되여 옥계주재소경관의지휘하에 소방조원의 필사적 노력도한기로 말미아머 급수작업이민활치못하여 그집과 이웃집합두채를 전소하고 동여섯시경에야완전하게 진화되엿다는데 출화원인은 조사중이며 손해는천원에달할터이라하며 마츰이날구장집에 성황제(城隍祭)를하고온가족이 첫잠에 곤하야 자든때에출화되어서 아모것도 꺼내지못하고 다태워버렷다고한다

中國共産黨員인 韓龍權等求刑

韓은三年役、李는二年役 言渡는來十日로決定

【新義州】 작년구월중순 상해령사관경찰서에 체포되여 평북도경찰부에서 취조를 끗내고신의주지방법원검사국으로 송치되여 그간 심리중에 잇든 중국공산당원 한룡권(韓龍權)(三〇) 리한우 (李漢禹)두명에 관한 치안유지법위반사건 공판(公判)은 삼일동법원에서 국지(菊池)재판장주심대삼(大森)검사립회로 개정되여 중진(中津) 형(邢) 량판사배석 다음과 가든 구형이 잇섯다。

本籍 義州郡枇峴面永平洞 居住 上海佛租界陶爾斐斯路 崔書波라는 韓龍權(三〇) 懲役三年求刑

本籍 咸北鏡城郡漁郎面 居住 上海佛租界陶爾斐斯路 金波라는 李漢禹(二八) 懲役二年求刑

한(韓)은 경성배재(培材)학교재학당시부터 어학에 열중하여 수물하살나는때 어학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에 가든도중 상해(上海)에 들려 동지에서중국공산당원 김거직(金巨稷)을 알게되여 동당에가입하야 활동중 체포된 당시까지 강서성(江西省)각지에서 공산군을 읽은한것이고 리(李)는 이십이세에 경성여의도 비행학교에서 수업하고 대정십사년 십이월 상해로 건너가 중국비행긔학교에 입학하려고하엿스나 동교에서는 공산당원이 아니라고 거절함으로 그후 공산당에 가입하여 전긔비행긔학교에들어가 공산군 비행긔를 조종하여활동하이다한다

地方人事

▲金潞奎氏(大阪榮浩吟社顧問) 同社創立人事次本社大阪支局來訪

▲許鋕氏(大阪榮浩吟社社長) 同上

▲柳元永氏(大阪榮浩吟社副社長) 同上

平南道內府邑面 戶別稅免稅標準

【平壤】 평남도에서 실시되는 호별세면세표준에 대하여 신중한태도로 연구를거듭하든중 면(面)의 표준은 오십원이하 면세, 부읍(府邑)은배원이하 면세로 결정되엿다한다

江景邑事務所 六日부터起工

【江景】 강경읍사무소 신축문제

咸南道土木事業費 百四十萬圓程度

土木工事、開拓事業費等으로 勞賃撒布는七十萬圓

【咸興】 함남도의 명년도 예산은 방금각과에서 그편성에 분망한중인데 그중 토목비의 예산안의 개략을보면 총액일백사십사만원가량으로 그내역은 북청남대천개수공사(北靑南大川改修工事) 등 지방발전 토목공사는 칠십오만여원 홍북민구조대공사비가 약삼십오만여원 북조선개척사업도로공사(北鮮開拓事業)삼십사오만원 재삼차궁민 구제사업의 연장인 서호진어항 (西湖津漁港)수축공사 팔만칠천여원이라고하는데 이일백사십사만원중에서 순전히 로임으로는 약밥분인 칠십오만원가량이나 산포되리라한다

興南驛構內서 驛夫一名轢死

【興南】 삼일오전다섯시반 흥남역구내에서 작업중의 역부한명이 즉사한사건이잇섯다 조사한바에의하면 원적을 원산(元山)에두고 현주를흥남역전에둔 민영보(閔泳甫)(二五)는 작년十월에 홍남역에 전근되여온후 성실히 그직무에 종업하엿다하며 그날도 아츰다섯시반에 화물차의 련결을식히다가 방금 확장공사중에잇는 역구내 지갈판에서 밋그러지면서 무참히도 기차밖에 깔려 즉사하엿다한다

死亡率三十%인 咸南痘瘡益猛威

一月中에發病者九十一名中 死亡者가二十餘名

【咸興】 루보=함남도의 두창은 또다시금년에 들자정초부터 창궐하기시작하여 일월한달동안에 만 구십일명의 신환자가 발생되엿스며 그중에서 이십오명이나 사망하엿다는데 특히 이번 두창은 극히악성으로 사망률이 삼십퍼-센트이상이나 된다고하며 더욱 맹렬하게 만연될형세에잇다고한다 이제각군별발생보면 다음과갓다

咸州 二七 咸興 一 定平 二三 永興 一一 新興 二七 洪原 一 甲山 四 三水 三 利原 一 計 九一名

大阪 會

在留同胞慰安音樂大會

▲時日 二月八、九兩日(九日午後一時、六時二回開演)

▲場所 大阪市大手町國民會館大講堂

◇主催 오·케音響器會社

◇後援 在大阪朝鮮文新聞各支局

會寧

經濟及醫學大講演

△時日 二月八日午後七時부터

△場所 會成學院

△講師 本報主筆 徐椿先生 / 濟世醫院長 李康文先生

◇主催 朝鮮日報會寧支局 同游仙分局 行營分局 雄基分局

異次頓의死 【90】

李光洙 作 / 金奎澤 畵

국사는 이차돈을 붓들어이르키며,

『오 우리 둘의 이 세상 인연은 오늘에 다하엿다。 그러나 도입제중생의 대원을 품고죽을때에 종로, 다시 만날때도 수업시 잇슬것이다。 그러나 네 마음이 내마음이오 내마음이 네 마음이니 서로 떠난다 모인다 하는것은 다만한 방편』

하고는 말을 중동을 끈코 뒤에 따라선 두젊은 중을 가라치며 이차돈더러,

『너는 이 사람을 알지?』

하고 웃는다。

이차돈이 자세히 보더니,

『오 공주언니』

하고 합장한다。 그것은 메주한가의 아들이엇다。

『오 이차돈!』

하고 공주도 합장하엿다。

백봉국사는 공주의 겻에 선 아름나운 얼골을 가라치며, 이차돈더러,

『너 이 사람을 아느냐』

하고 웃는다。

이차돈이 그 사람을 자세히 보더니, 놀라며,

『섬마 버들아기시리까』

하고 국사를 본다。

『바로 그러하다。 버들아기가 지나간 삼년 동안 너를 사모하야 큰 이몸을 차자 왓기로 이차돈을 따르라거든 중이 될길밧게 업다고 하엿더니 이러케 머리를 끈코 중이 되엿다。 모두 전생다생에 얽히고 얽힌 인연이다。 저 별님 달님 두아가씨가 너를 따라 천리ㅅ길을 해맨 모양으로 이 버들아기도 너를 따라 천리ㅅ길을 가는것이다。 공주도 불법을 위하야, 또 네게 대한 우정과 누이에게 대한 우애지정을 위하야 신라로 가는것이다。 신라에 가서 어떠케 할것은 미리 말할것이 아니어니와 오늘부터 너희 다섯사람은 불법속에서 형제요 자매, 어룹이 나흔 아들과 딸, 신라의 어치만 중생을 건질 보살들』

하고 지평이와 함께 차서 를 엇은 칼 둘을 글려 이차돈과 공주에게 주며,

『자 이 칼을 가져랑 살생을 하엿거니와 젊은 여자들이 다리고 가서 혹쓸 데도 잇을듯 부처님도 일천체(一闡提)、불법을 해하는 중생을 버히기를 허하섯나니라。 장애를 익하나이 허하엿다 이몸을 떠난 뒤에는 너희들은 다 이차돈을 이몸으로 알어라。 일심(一心)을 상호좌선 (常好坐禪)、관일체법공 (觀一切法空)이라한 마음에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자비심에 자리를 잡아 흔들리지 말고, 사생이나 고락이나ㅅ간에 애체하지말라는 뜻이야。 이 마음으로만 가면 거칠것도 업고막힐것도 업나니라。 내가허공이거니 무엇에 막힐까보냐 이 칼은 날 인욕(忍辱) 못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버히기에 먼저 쓰란말이다。 나무불! 자 다들 가거라』

하고 국사는 다섯 사람을 향하야 합장한다。

『시님은 어듸로 가시오?』

하고 이차돈이 참아 떠나지못하는 비을 보인다。

백봉국사는 말업시 손을 들어 상하팔방을 가르치고는 지팡을 집고 용천암쪽을 향하고 간다。

이차돈일행은 길ㅅ바다에 업드려 백봉국사의뒤를 향하고 수업시 절한다。 절하고 일어나보니 국사는 간곳이 업섯다。

이차돈일행은 국사가 가던 방향을 향하야 여러번 합장하고 한개 다리를 건너서 동으로동으로 걸엇다。

느즌 봄의 평양 꾸업는 벌판 밧사이는 풀밧사이로 다섯명 젊은 중은 말업이 걸엇다。 종달이가 뻘안 대긔ㅅ속에 오르락나리락 노래를 불렀다。

이차돈은 평양을 떠날 때에 마음에 걸리는것이 둘이 잇엇다。 그것은 메주한가와 밥달이엇다。 이차돈은 우뚝서서 평양서울을 돌오보앗다。(『나라ㅅ벌』이라는것이 고구려ㅅ사람이 서울을 부르는 말이엇다。)이십오만호라는 평양성。 그것은 삼년전에 이차돈이 처음 올때보다도 더 커지고 더 화려하게되엇가 탓다。 일백오십만이나 되는 평양에 사는 중생을 위하야 이차돈은 진심으로복을 빌고 자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꿈고로 풀엇다。 밥달 그 아비 거울 보고, 거칠아비, 이런한 생각이, 한참 동안이나 이차돈의 마음에서 떠나지아니하엿다。

유모 구하오니 분만한지륙개월내로 이십세이상 삼십세이하 경성부정동(貞洞)八番地 전화(광)一七三八

都賣散賣
鑛山用藥品 工業用藥品 衛生材料品 醫療器械 處方調劑 醫療藥品 有名賣藥
京城府鐘路四丁目 電車交叉点
山崎仁壽堂
電光化門二五六番 振替京城八〇八番

副業本業
小額의資本으로 專屬製造者急募集
大阪市西淀川區海老江下二ノ五三 電話土佐堀四二六六番
合資會社 千代田商事本店
大阪市西區本田一ノ十八 電話西七三九八
製品販賣部
支店 名古屋市中區中東田町四ノ一九

金 銀 福 白金
000212
株式會社 石福商店平壤出張所
平壤府旭町 電話一三一四番
本店 東京市下谷區練塀町

外科 X光線 京城鍾路三丁目十六(入院室完備)
醫學博士 鄭求忠
電話光化門六八五番

眞品 海狗腎을服用하라
長生不老도 陽氣가 조아야! 大業成就도 陽氣가 조아야! 陽虛한 男子는 生不如死다! 速히 이—樺太廳官營採取品인
本品은補精腎氣强壯에神秘的靈效가有한바北洋寒帶地方의産物을樺太廳에서官營으로捕獲하야同廳水產物檢查所에서嚴正檢查證明한世界的高貴의眞品이라一服하시면그神效를能히料量할것이외다
(求服을願하시는분은說明書請求次第곳進呈함)
發賣元 合資會社 大洋貿易社
釜山府草梁町三○二番地ノ三 電話長一二九番 振替釜山七九二三番

第一劇場
여러분의 鍾路四丁目 電光二五
오래간마의로이드映畵! 잘아시는바이오니更論치안슴니다
로이드爆笑王國
米國파데社 렉드유메이야監督
蠻勇다ー산
世界水泳選手바스다크라프主演 野生의男子다ー산! 密林에跳躍! 落下數百尺大瀑布를飛渡하는妙技! 土人과亂鬪豪勇無比의大다ー산! 冒險猛獸映畵에壯快! 新興映畵
田中重雄監督
現時劇 霧の夜の舗道
河津清三郎 桂珠子 主演
어는여름날밤! 愛人과거리에서良殺하라는可憐한女性을救하야다! 그後親姉妹와가리言語가運命의行路를告하야 그게사랑하든그사나희의마음은 용서! 기여저라다! 이러한事情을알게된그女子는그들의幸福을爲하야스스로 ... 米國푸린필社超特作全發聲
新興키네마超特作サンデー每日所載
二月五日낫부터三日間大公開 每日三回興行十二時부터六時까지 夜間七時大衆料金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優美館
鍾路 電光三九五
다ー산의新冒險
天下名篇다ー산의續映週間! 二月四日부터二大名篇交替興行! M·G·M·超特作全發聲日本版! 에드와ー드갈氏監督
오림픽砲丸投選手하ー만부릭그스氏主演 유ー나홀드嬢助演
旋風地獄谷 全十五篇中四、五、六篇上映
유社超特作全發聲連續大活劇 監督래이대이라ー氏
快漢바그존스氏主演 加商무리엘에반스嬢
第四篇……金鑛의所在 第五篇……暗夜의猛鬪 第六篇……殺人的爆彈
大都映畵社特作現代劇 小澤得二監督作品!
貞操
琴糸路嬢 主演 柳澤俊夫 助演 大豫告! 化石人間 倫敦의人狼 乞期待!

"弗貨의動搖" 磅、法、圓과의關係

●申泰翊

昨年末에잇서 매우 平靜狀態에 잇든 弗貨는 今春에들면서 軟化하야 米英크로쓰는 一年二三個月만에 五弗臺를 나타내여 國際爲替戰의 序幕이열리기 시작하엿다 그뒤에도 弗貨市勢의 弱한경향이 繼續되고말허서 磅、法貨高 또 弗貨高가 相當한幅에일으럿다 그런데 三日華盛頓發電은 米國財務省으로부터 對歐正貨現送을 許可키로되엿다고 報하야 一層 世界經濟界에衝動을 준다 그러면 前것이 弗貨低는 어떠한原因을 밟어갈것이가 또는 이로因한 磅、法、圓貨에 밋치는關係가 어떠할것으로 보아야될가 이것을 簡單히 살펴보고자한다

×

지금에잇서 國際爲替의 動搖를 보게한까닭은 무엇보다도 弗貨의低落에 잇다고 볼것이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 하면 今年에 들면서 磅貨가 노파지고 딸하서 圓貨高를 보게한것은 그自體의 事情으로 된것이 아니라 弗貨가 떠러짐으로 생긴 波動的反射現象인때문이다 그럼으로 이國際爲替의動搖를 살피라고함에잇서는 먼저 弗貨가 무슨까닭으로 떠러지는가 함을 밝히지안흘수가 업게된다 卽 이弗貨가 떠러지는理由는 첫재로 米國은 通貨인플레政策이濃厚한點 둘재로는 이것을 裏付할材料로삼고 弗貨價의 스터빌리 - 터 - (安價)가 旺盛케되는 點에 잇다 이것을 다시 다옴과가티 난와서 말할수가잇다

×

오늘에잇서 米國의通貨인플레는 아모럭케해도 避할수업는 處地에잇다고 말하는事情이 어데잇는가 하면 卽

▲첫재로 農業調整法(A・A・A)이 깨여진때문으로 政府는 그代案을 樹立치안흘수가 업게되엇다 그래서 이代案을 實行함에는 그에要하는 新規財源을 放出치안흘수가 업을것이다 이러케될경우에는 할수업시 通貨인플레에 依함을 免치못할것이라는點

▲둘재로는 軍人恩給法案이 議會를 通過하엿슴으로 約二十億弗의 追加豫算을 면할수업게되엿다

▲셋재로 通貨루쓰벨트大統領의 弗貨平價切下權限의 一個年延長에 伴하야 米國의弗貨再平價切下의 風說이 相當히傳하고잇는點

等을 가지고서 弗貨前途에 對한弱材料로 삼는다

×

그런데이中에잇서弗貨平價切下는아즉確證할만한根據가 잇다고 볼수업는 材料이며 또는 가령 그 風聞과가티 루쓰벨트大統領이 남어잇는 九分六厘의 弗貨平價再切下를 한다고 하드래도 金價格은 現在一온쓰에 對하야 三十五弗에서 四十弗乃至卅四弗으로되고 가령 倫敦金塊一온쓰에 對한 七磅이 變치안는다고 하면 米英크로쓰는 五弗九十仙程度까지 올나가게 될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農事調整法의 代案과 軍人恩給法案의 通過等 兩材料만은 通貨인플레를 促進케할 事情으로 되여 잇는만큼 結局에는 根據잇는 事實과 風聞이 한데 뭉처가지고서 弗貨의低落을 보게한것으로 생각한다

×

以上은弗貨自體의事情으로因한것을 말한것이나그밧게좀過激하여오는點이 잇다 卽 佛國의平價切下說은 佛國의內閣의崩壞로 亦是그 危殆를 傳하든것이 사르 - 新內閣에對한 議會의 信任으로그 切下說이 사러지고 一面으로對英外貨成立說까지 傳하야 얼만큼 安靜狀態를 보게되엇다 그래서 한때에 佛國財界의危殆를 念慮하야 米國으로 逃避하엿든資金은 自國의小康狀態와 弗貨前途의不安을 機會로 復歸하는것도 亦是 弗貨의落勢를 더하게하는作用을 보게 되는것이다 —(續)—

突然米國財務省 對歐正貨現送許可

三日對佛、和五百六十萬弗을 今後도繼續許可準備

【華盛頓三日發電通】米國財務省은 三日弗價低落이 顯著케되야 對歐正貨現送의 要求가나타낫슴에對하야 金의輸出을 모두 許하야 三日만으로 五百六十萬五千弗의 對佛及 對和蘭現送을 許可하엿다 그리고 財務當局은 만약 弗貨가 金輸出圈을 너머서 一層低下할境遇에는 어느때라도 現送許可를 繼續할準備가잇다고 言明하엿다 (寫眞은 米國의金貨)

弗爲替急落 歐洲逃避資金歸還 佛蘭兩國顯著

【紐育三日發電通】三日의弗爲替는 急激한軟化를 示하엿스나 對英레 - 트는 一擧 二仙四分三을 올리여 五弗四仙半으로되고 對日레 - 트도 이에伴하야 十二仙의 急騰으로 二十九弗卅六仙이 되엇는데 이急變과同時에 오래간만에 巨額의對歐現送이 開始되고 歐洲에서逃避한資金 特히 佛國과 和蘭으로부터 逃避하엿든資金이 續續 歐洲로 歸還이 開始되엿다고한다

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賣二十九弗三十七仙으로 十三仙高 買二十九弗三十三仙으로十三仙高이엇다

▲東京爲替(四日)
對米 賣 二十九弗四分一 買 二十九弗八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一

▲大阪爲替(四日)
對米 賣 二十九弗四分一 買 二十九弗十六分五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一

和蘭銀行 又復利下 公定割引利率

【암스텔담三日發同盟】和蘭銀行은 三日 公定割引利率을 三分에서 二分半으로 내렷다 同行은 지난 一月十五日 三分半에서 三分으로 내렷는데 金融界의 情勢好轉으로 다시利下를 한것이라고한다

米日爲替暴騰

【紐育三日發同盟】三日의米日 [illegible]

◇……展開되는各國爲替戰(上으로부터) 弗貨、磅貨、法貨、圓貨

地元銀行 遊資橫溢 放資競爭展開

朝鮮內地元銀行은 前期末 各行의 決算에依하야 明白히된바와가티 貸出의 增加率에 比하야 預金增加率이 從來에 업시 만케되어 各種資金共히 回收率이 多함에 不拘코 新規需要가 그比率보다 적음으로 各行共히 資金이 豫想外의 餘裕를 生하야 普通銀行과如한은 朝鮮銀行으로서의 借入金을 返濟하는狀態이며 오 이結果 自然融資競爭이 激化하야 特히商業手形과 如한은 最近日步一錢七厘程度까지 떠러젓스며 一方商品爲替資金과如한도 日本內地支店銀行이 受取爲替決濟上 朝鮮銀行의 廻金料를바라고 거의 無手數料로 引受함으로 手數料를 中心으로대단히利潤이 低下하야 今後現在와 如한 放資物件枯渴로 遊資潤澤을 持續하면 更히 深刻한放資競爭이 展開되리라고 憂慮되다한다

特產取引建 六十『키로』로

【哈爾賓四日發同盟】當地商務會에서는 二月一日부터 特產取引을 從來의封度建에서 米突法으로 改하야 現物取引은 六十키로建(百斤)卽大連取引所도 二月十五日의 新甫五月限부터 十키로 建으로하얏고 一千封度 八千封度를 三十키로噸으로 改하얏다 이로써 北鐵當時의取引單位는 完全히 廢止되어南北滿洲가 共通으로되엇다。

天然氷採氷 一萬噸許可

京畿道當局은 京城의氷會社合同을 豫想코 天然氷의 採氷을 今年부터 中止할意向이잇스나 氷合同이 圓滑히 進捗되지안흠으로 今年에限하야 供給困難을豫想코 七千噸의 採氷許可를 與하엿다 그러나 今年은 氷質이 良好함으로 三千噸의 採氷許可를 與하엿슴으로 結局 今年天然氷採氷은 一萬噸으로 되엿다

朝鮮米實收 二回豫想과無大差 今月七八日頃에發表

十年度 朝鮮米實收高는 一月末日로서 各道別의 集計를終了하고 目下總督府農林局에서 集計를 急히하는中인데 實收發表는 一兩日을 要하야 七日이나 八日頃 豫定이다 그리고 實收數字는 十年度는 秋期天候良好로第一回豫想에比하야 第二回는少增되어 一千七百八十二萬石으로豫想되엇스나 實收는 第二回豫想과 거의大差업슬것으로 大約第二回 豫想에比하야 增減共히 十萬石不出이라고보이며 農林局에서도 總勢로 米價에도 別無影響이라고 보고잇다。

生絲暴落 八百圓臺以下로

昨年末一時 一千圓소리까지나도록올랏든生絲市勢는 反落步調이더니 九百圓이 깨어진後도暴落되어 四日에는 橫濱生絲先限도八百圓大關門이 깨어저서 前寄七百六十九圓 後寄七百六十三圓으로漸落이엇다。

仁川期米市場 事實上京城移轉! 取引員十名中八名株兼營

京仁取合倂當時仁川의 猛烈한反對運動으로 仁取京城移轉이 實現되지못하고 朝取로된後도 仁川期米市場은 仁川支店으로서그대로 營業해오는터인데 其後期米가 米穀統制法의 影響으로價幅이 縮少되어 業績이不振하자 取引員의株、米兼營問題가 擡頭되어 兼營이 實現되자 仁川의 米豆取引員으로서 京城證券部取引員을 兼營하는者 漸增되어明五日森野氏經營의 明治證券株式會社의 證券取引員 開業으로써 現在仁川米豆部 取引員十名中八名이株兼營으로된다。單純히 仁川에서 米豆取引員으로서 營業하는者는 ㈹雄洪 ㊅吉村의 二店뿐이다。그리고 八名의 株米兼營取引員으로서 그主人或은 代表者가 京城에常住하는 사람이 五人인바 如斯한現象은 事實上의米豆部의 京城移轉을 意味하는것으로서 今後萬若 米豆取引이 閑散해진다면

一、取引所側으로서는 仁川支店의經費

一、兼營取引員은 仁川營業所의經費

가 元費로되어 不遠한 將來에 朝取仁川支店卽 米豆取引市場은京城으로 移轉되고 歷史오랜仁川市場은 廢鎖될 運命에 잇는것이라하야 前途가 注目될터이라한다。

紡聯加盟据置錘數 一千三十三萬錘 未曾有의增錘新記錄

【大阪電話同盟】紡績聯合會調查＝十年十二月末의加盟各社据付錘數는 一千三十三萬四百五十二錘(스지 - 블파이바振替錘도包含) 六月末에 比하야 五十九萬一千百五十二錘前年同期에 比하야 百萬四千八百五十八錘의 未曾有의 增錘記錄을示하엿다。番手別錘數도 太系의 採算에도不拘코前年同期에 比하야 各番手共히 一齊히 激增되엇다 番手別据付錘數와 燃絲錘數織機臺數는如左하다。

單位錘와臺	十年十二月末
二十八番手未滿	三、七三〇、七〇五
二十八番手以上六十番手以下	五、七三二、〇四七
六十番手以上	八六七、七〇〇
合計	一〇、三三〇、四五二
燃絲錘數	九〇〇、〇六四
織機臺數	八九、六六四

十二月中의 綿織物產額

【東京電話同盟】商工省發表 昨年十二月의 日本綿織物產額은 六千七百十一萬六千三百十四圓인데 그中 幅廣物五千四百七十六萬一千五百圓、小幅物七百二十九萬五千七百四十九圓 特殊物五百萬九千六十圓으로 前月에比하야 總額에잇서 四百五萬一千百五十二圓、五分七厘의減少이다 이것을前年同月에 比하면 一千百三萬六千百七十六圓一割四分一厘의 減少라한다

各港在米 多少增加 一月末의總數量

一月三十一日現在의 朝鮮內各港在米高는 百六十一萬七千八百十二石으로 그內容은(以下單位石)

民間米 一、三三三、五九七
政府米 一、二九五、二一四

으로 合計에잇서 十二月末보다 二十二萬四千八百三十九石의增加 前年同期에 比하야 三十萬四千四十石의 減少이라고

殖銀의 融資金

殖銀一月末現在 融資金放出額은 共購資金七十萬圓 前渡資金 三百三十三萬六千圓 合計 四百三萬六千圓으로 今季最高記錄 五百六萬圓에 比하야 約百萬圓減少를 示하얏다

經濟界消息

○北鮮製紙工場今月中旬入札＝北鮮製紙會社에서는今月中旬 或은今月下旬 吉州本工場의建設入札에附할터인데 建築關係의 社員幹部는 不遠入京하야入札에立會키로되고 解氷期를기다러 着工할터이라고

○殖銀課長代理異動說＝殖銀에서는 今月卄日頃 課長代理級의 異動을한바 相當한 廣範圍에 亘할모양이며 本店商業金融의 種蒔審氏는 十八銀行支店引繼에伴하야 龍山支店長으로될모양이라고

商況(四日)

株式 東新關門、割下

前場保合 今前場은 外電區區함에 高價賣氣不嚴으로 伸悩保合이엇스나 卽 昨後場引에 比하야 東新은 百六十一圓七十錢 日產은 七十六圓七十錢 大新 九十一圓七十錢 鐘新不變인三十圓丁에 各大引되고 日產新二十二圓五十錢

後場低落

後場은 東新關門割 百五十九圓九十錢 日產七十五圓五十錢 大新九十一圓七十錢 朝新三十圓丁 日產新二十二圓五十錢에 低落寄後 不勢推大引

期米 細刻保合 堅調

前場反高 昨後場 阪地二十一圓三十六錢止와 共히 二十九圓二十五錢에 場을止한 當市場은 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一圓二十五錢인 一丁反落을 續하고 二十九圓二十錢인 五丁低로場을 始한後 阪地四十六錢까지 昂騰하엿다가 四十四錢에 止함을 作하야 三十四錢을 最高로三十二錢에 場을止하엿다

後場釘着

後場은 二十九圓三十錢에 一丁高로 始場後一節二十九錢三節부터 五節까지 三十錢에 釘着이고 三十錢에 止하다

東京國債市況

【東京電通電話】氣乘薄인데다가 當限落으로 商運市況이엇다 甲五分利 一〇五三五

實物株前場取引

▲片倉製絲 [illegible] ▲에다파이新 [illegible] ▲朝鮮製鍊 [illegible] ▲朝鮮麥酒 [illegible] ▲滿洲煙草 [illegible] ▲櫻山機械 [illegible] ▲富士木材 [illegible] ▲北鮮製紙 [illegible] ▲旭石油 [illegible] ▲金剛電鐵 [illegible] ▲朝鮮石油 [illegible]

人絹株再檢討

昨年下半期에잇서서의 人絹株悲觀의主體는 今春增產이엇스나 그增產期에 直面하고서도 需要는 相當히增加되고 大勢上으로 上昇을 要치안는情勢로 되는데다가 各一流會社의業績은 極히順調로서 倉敷를除한外는 모다 相當永續의 可望이서고 製品의 新低價를 바라보면서도 會社의 態度는 意外로強硬하야 環境이 樂觀的으로되엇다。現在株價는 低까지 賣叩되엇스니 單純한 訂正만으로도 相當한反撥을 期할수잇는터로 今後의騰貴率은 클것이라는말이잇다

株式의現代色

新春以來의 市勢는 投資的色彩가濃厚하야 物色選擇買가 特徵이오 穩健한大勢向上 途程에 잇다。事業界의好調가 繼續되겟스니 依然投資의 本義로 業績을 觀察하는 株式을 物色하는方針에 變함이업고 今年의事業界가 인프레時代와가티 急激한膨脹이나 活潑한 上向은업겟지만 堅實한 進展은 期待되는터이다。鐘新의波瀾도 優良雜株買時代를背景으로한 顯著한現象으로서 單純한 鐘新의 獨自의市勢示現이아니라 볼수잇다。

이것을 投機視할수도잇지만 投機와投資는 그潮流가相異함을 알어야할것이다

投機株는新春以來徐히 玉整理를行하야 東新은五圓臺이엇스나內閣波瀾을압에反하야 投資株는 有利한後援材料에 依存해잇다。總選擧의結果 現內閣이 更迭되어도 財政政策은 變치안켓고 또 財界의 客觀的情勢로도 그變更은업스리라고생각되며 赤字公債가 增加되어도 日本國力伸長이라 貿易前途는 多少의 犧牲은 참어야하며 이것을 悲觀하면 株式의現代色은 優良雜株買가 現時의特徵이라는말이잇다。

期正稍訂正? 定期俄然強硬

一時期正의鞘가相當하야 渡米를 斷行하려는買方主力側은 本月에入하면서 正米는農家의賣物稀薄으로 依然高價를維持하고 淸算市場만이 日本內地米實收高의 增加로 數量瓦落을 告하기때문에 定期는俄然正米보다의二、三十丁의低鞘를示하고 此景氣는主力買方은 渡米하는것보다 定期를轉賣한것이 有利하다하야 所持米를處分하엿슴으로 定期에는 그만한威壓力을免하엿다할수잇다 그러한關係로由한인지 · 定期는繼續瓦落을許하지못하고 稍漸漸調를 添하야 低價에서 非餘丁의反高를示하엿다 此騰勢가 永續性을가지고잇을지는疑問이나 期正의鞘는 訂正되엿다

後부터 稍鞘擴頭하야 阪地는三十餘丁當地는 二十餘丁의 反高를示하엿다 此에서 反撥을示한다할지라도 當分이러타할만한 強材料가업슴으로 軟派의 賣戰하기까지에 當分高價는 엇을모양이나 그러나 어느程度까지의強調는 持續될것같다 要하면 此반등의 反高는 政府의 買上實施

賣過의反動?

今回政府米 四十萬石買上發表를 接하고도 皮肉的反落을 告하는 各地市勢는 新甫四限이 發會한 [illegible] 情如何에依하야 定期도 正米의事 모양인데 果然農家의 賣惜方針이 어느時期까지 繼續될지 此가 注目處이다

堂島前場賣買

【大阪電話】賣方＝東京側、松本 神戶側、中東側、西側 買方＝潮政、田中貞、地場乘換、江草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賣方 買方
◇中限
◇先限

(figures [illegible])

市場六感

株 米國財務省은 三日對佛對蘭五百六十萬五千弗의 金現送許可 今後도 金輸出許可決定▲米國인푸레는 拍車를加하야今日入電 스털은 五十一弗三十六仙으로 一擧十二仙暴騰에 寫로暴騰▲米日爲替二十九弗三定▲米國財務相材料格 今前場市勢는伸悩保合▲日產은 九十六圓臺를 買하얏스나 今日은一息 그러나循環買가 압흐로도 長期間繼續되겟스나 低位에잇고 賣込되엇스며 總悔되어던 日產에對하야 相當한 活況을可期▲日產百圓소리를 지금은 꿈가튼소리이지만 今年株界大勢

米 오래동안 旱魃로飲料水까지 枯渴되엿다고 東에서 西에서 民情이 騷亂하더니 이제야 白雲이 滿乾坤▲江湖一白의 詩的景致도 조커니와 農村의 民情도 얼마큼緩和될터이지▲압흐로 立春을 지나서 雨水驚蟄의 天氣가果如何할지 時日을 經할사록 天氣를 注

로는 期待하야도 조흘일▲明治證券이 明日開業하야 證券取引員이 또하나 는다 仁川取引員十名中 八名이 株兼營 그러지말고 아조 仁川支店을 廢止하고 米豆까지 서울서하는것이 取引所도 經費가 적게들고 取引員도 京城一店으로되니 조흘것아닌가

目下계될모양▲一時二、三十丁이나 鞘低이든 定期가 다시 頑強하여지는모양이니 期正의 鞘도 相適하게될듯▲賣로正米市勢는 農家의賣惜으로 容易히 低落을 許하지안는다 原動力을가진 正米가 依然頑強히다면 定期의 單獨反落은 無望▲그러치만 四圍의情勢로 보아서는 米價의 昂騰을 促進할만한強材도 업스니 어느時期에 至하기까지 保勢를 支續하기가 十常八九▲阪地의馬越老는 軟化하엿스나 그러나 市勢는反히頑强▲어느程度까지 反騰하는때는 馬越老의 威壓的賣物이出現할모양이니 買方으로서는 그두가防戰?

各地正米

京城底固

賣行 不振이나마 定期의 硬化와 賣物稀으로 小綾高唱인 九三等二十九圓丁 四等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三十一圓五十錢

仁川強堅

產地依然 賣惜態度繼續으로 市中取引은 依然 少量에限하나 定期의 硬化로 十錢高唱인 丸三等 二十九圓丁 四等 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 三十二圓二十五錢

釜山引締

市場出廻三十叺로 出廻不圓滑로 依然實物이적고 期米의續騰을보고 買埋等으로 一氣로 十五錢引締인 角ㇳ三等二十九圓十五錢 四等二十八圓九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六錢

大邱反撥

產地는 買上成績과實收發表待로 總傍觀人氣이요 市中取引이 자못不捗이나 淸算의漸高로 氣配一轉二十錢高唱인 角ㇳ三等 二十八圓四十錢 四等二十八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一圓七十五錢

群山調堅

延着十一輛 依然產地로부터의 荷動이 緩漫함으로 新規取引이 極度의閑況을告하얏는데 定期의 硬高를보고 [illegible]

木浦昂進

日本內地는 買上發表 好感으로 買氣擡頭와 常用向의 假需要的 買占으로 成績을 보면서 積極的으로 買付치안흐나 定期의 硬騰을굿고 二十錢昂進인 ㊌三等二十九圓十錢 四等二十八圓九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今日財界 (四日)

◆米 仁川期米 大阪期米 正租(仁川) [illegible]
◆株 朝新 東新 日產 [illegible]
◆市中金融 [illegible]
◆商品 大阪綿絲 大阪棉花 大阪人絹 大阪砂糖 [illegible]

(The market-price tables filling the lower part of the page — 金融四日 (海外經濟、朝鮮銀行券、日本銀行券、京城手形交換高、東京金利), 大阪金利、對外爲替、金買入價、京城正米、仁川正米大豆、京城雜穀、京城綿糸布市勢、京城絹布、日本麥粉市勢、鑛油沖價、大連特產市勢、滿洲商況、鑛粕沖價、大阪短期、東京短期、東京現株、朝取短期賣買高、算定代引日步、朝取短期、大阪短期取組、大阪長期、朝取期米、朝取期米賣買高、朝鮮內各地期米、大阪期米、大阪正米議事賣買、大阪市中在米高、東京期米、日本各地期米、各地正租市勢、商品四日 (大阪綿糸、大阪棉花、各地人絹、橫濱生糸、大阪砂糖、海外砂糖、외카豆期安) — are too small and blurred in this scan to read reliably: [illegible])

金・白・銀・金 賣 買 大陸商會 京城府茶屋町(小公洞) 電話本局三二三一一六番 振替京城五四五番 代金引換販賣 料送先要 地方注文

金銀賣買 永金商會 京城府本町一丁目 電話本局二六八九番 地方注文拜送料先方負擔

朝取取引員 株式 ㊄ 期米 柳來恒商店 京城府本町 仁川府本町三丁目 電話